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BETTER PEOPLE BETTER WORLD



머릿글 서울사이버대학교 부총장 강웅선

2월 프로그램

화제의 강연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김태길

커버스토리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허상만

인문학과 과학은 날줄과 씨줄 상호 발전 위한 연구지원에 주력

리더십칼럼 밌아카데미 원장 박완순

지자체특강 우석대 교수 김영호

발행인 편지

경영에세이 명성그룹 회장 김철호

회원 & 연구원소식

LMI for Your Personal Leadership

오픈세미나 하버드대 박사 서진규

정보비타민

머니에세이 서울에셋투자자문 사장 이찬일

문용린칼럼

표지인물 허상만 이사장 / 사진 오경근 원장

2008 February

2

등록번호: [매체] 등록번호: 서울 라 09006 발행일: 2008년 2월 1일 (사)인간개발연구원 발행인: 장민기 편집: 정영달 디자인: 이재경 pas@kchdi.or.kr 주소: 138-240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포동 14-4 강남우체국 B/D 5층 T.2203-3500(F) F.2203-1974 www.kchdi.or.kr (주)동명인쇄



언제나 변하지 않는 마음
늘 곧고 푸른 대나무 같은 마음으로~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대나무처럼
흔들림없이 고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www.seoulgas.co.kr



일하는 방식이 변해야 성공한다

강응선 서울사이버대학교 부총장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드디어 선을 보였다. 18부 4처에서 13부 2처로 그 규모를 축소한 만큼 그동안 국민 의 정부와 참여정부 동안에 정부 규모가 너무 비대해지고 비효율적이 됐다는 비난은 일단 면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될지 지켜 볼 일이지만 새 정부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출발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정부 조직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동안 민간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공공부문이 필요이상으로 개입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떨어트렸다는 반성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다. 한마디로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공공의 몫(역할)을 줄임으로써 민간의 활력을 살려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해 우리가 바라는 국가 경쟁력의 제고가 이뤄질 수 있을까? 정부 조직개편은 분명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에 해당된다.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개편된 조직에서 일하게 되는 공무원 개개인의 의식구조와 일하는 방식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선진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조직개편의 효과는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고 말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여러 번 경험한 바이기도 하다.

가끔 봄맞이 대청소를 하거나 평소 길거리 환경미화원을 해도 국민 각자의 청결의식이 몸에 배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지럽혀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바라는 '알뜰하고 효율적인 정부'도 결국 내부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의식과 근무 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공무원의 의식과 자세를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게 좋을까?

먼저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발로 뛰도록 해야 한다. 서민교통정책을 다루면서 자가용으로만 출퇴근하거나, 물가정책을 맡으면서 할인점에서 쇼핑 한 번 해보지 않는다면 그가 만든 정책은 시장 즉, 현장을 외면한 탁상공론에 그치고 만다. 조직개편으로 남아도는 공무원의 숫자를 걱정하기에 앞서 더 많은 공무원들을 일선 체험의 현장으로 보내야 한다. 굳이 서울시의 예를 들 먹일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다음은 공무원들을 지금보다 더 바쁘게 해야 한다. 이제껏 공직 사회를 보면 3분의 1은 자신의 밥값을 제대로 하는 사람, 다른 3분의 1은 제 밥값도 못하는 사람, 나머지 3분의 1은 동료의 못 다 한 밥값을 채우려고 힘들게 열심히 하는 사람 등 대충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는 민간기업 같으면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현상이다. 개편된 조직과 기능에 따라 각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 그에 따른 성과와 책임을 동시에 따져 보아야 할 일이다.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불필요한 일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것들이 곧바로 규제의 창출로 이어지기 쉽다. 현장에서 발로 뛰기보다는 책상에서 편하게, 그리고 일을 하고 있다는 모양새만을 갖추다 보면 자연 쓸데없는 규제를 만들어 내는 게 공무원들의 속성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문민정부 이후 15년 이상 이어져 온 규제개혁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주로 이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규제를 제대로 없애려면 먼저 공무원들이 '易地思之'의 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 민간 기업은 이미 '고객위주 경영'을 생존원칙으로 삼은 지 오래다. 공무원들이 모든 업무에서 우선 고객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그렇게 시장과 동떨어진 정책이나 규제는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그동안 곳곳에 분산돼 중복되고 있던 기능들을 통합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경제정책의 조정을 기획재정부에서, 기업활동 지원을 지식경제부에서 일괄적으로 책임지도록 한 것이 좋은 예다.

따라서 상당한 수준의 정책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지만 이 또한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이 함께 변화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임을 지금 이 순간부터 가슴속에 새겨 나가야 하겠다. **강응선**



강응선 부총장

1949년 생으로 서울대 상학과를 졸업하고, 미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 석사,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 산업3과장, 조정4과장 등으로 일했다. 매일경제신문사 논설실장, 매일경제연구소장,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 시장경제연구원장, 한국경제평론가회 부회장, 문화경제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고려대 초빙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월프로그램



2월

인간개발 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창립 33주년 기념포럼

세계의 미래, 한국의 미래 - 우리의 미래지도를 디자인한다

제1536회 2월 14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2층 국화룸



사회: 김광웅 시사IN 대표이사

서울대 법학과 졸업 | 서울대 행정학 석사 | 美 하와이대 정치학 박사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명예교수 | 한국행정학회 회장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이사장 | 한국공공정책학회 회장 | 중앙인사위원회 초대위원장



발제: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한국대표

경북대 불어교육학과 졸업 | 美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육학 석사 | 성균관대 사회복지학 박사수로 | 주한영국대사관 공보관 | 주한호주대사관 문화공보실장 | 미래다문화재단 공동대표 | 세계미래회의 한국대표 | 연세대 생활과학대학원 겸임교수



토론: 전상인 한국미래학회 회장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연세대 정치학 석사 | 美 브라운대 사회학 석사 | 美 브라운대 사회학 박사 |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 美 워싱턴대 사회학과 방문교수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토론: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 서울대 행정학 석사 | 美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 | 대통령비서실 경제국장 |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세무대학장 | ASEM 준비기획단장 | 관세청 FTA추진위원회 위원장



토론: 이영희 KT 미래기술연구소 소장

한국항공대 통신공학과 졸업 | 벨기에 브뤼셀대 전산학 석사 | 제16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 한국통신 기술표준팀장 | KT 글로벌사업단 해외ADSL사업팀장 | KT 베이징사무소장 상무보 | KT 미디어본부장 상무

미래의 경쟁력 확보는 미래사회변화를 읽어야만 가능하다. 변화가 없던 농경시대나 산업시대에는 미래예측이 필요 없었지만 정보화 특히 후기정보화시대의 미래변수 읽기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세계 50여개국은 이미 정부산하에 미래전략기구를 두고 있고, 80여개국에서는 미래예측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책임감을 정부가 가지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2030 국가미래예측보고서'에서는 2030년에 국경 소멸, 지구촌정부탄생, 8개 경제블록으로 지구촌 재편 등을 예측하고 있다. 이 중 아시아는 한중일이 느슨한 FTA로 경제블록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요한 점은 인도를 합한 동북아연합 구성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는 2015년이면 일본을 추월하고 2050년 후에는 세계 최대강국이 된다고 보는 예측이 많다. 그러므로 지리적으로 끼인 한국의 위치가 중요해진다. 일본이 쇠퇴하면 한국의 지리적 끼인 위치의 값어치가 소멸하기 때문이다. 즉, 2015년 이전에 한중일 중간위치인 한국에 동북아연합 본부를 두고 중간자적 역할을 자청해야 한다. 그래서 투자를 끌어들이는 전략과 함께 교육관광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이나 예산배정을 통해 2030년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자원도 없는 상황에서 전략까지 없다면 미래 역시 없을 것이다.

이번 창립 33주년 기념포럼에서는 다가오는 미래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형상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예측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세계의 미래 그리고 한국의 미래 모습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포럼은 김광웅 시사IN 대표가 사회를 맡고, 유엔미래포럼 박영숙 한국대표가 주제발표를 한다. 이와 함께 전상인 한국미래학회 회장과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이영희 KT미래기술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하게 된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가는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초찬 강연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윤수 휠라코리아 회장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해운공사 근무 | J.C.PENNEY 근무 | (주)화승 수출이사 | 한빛은행 비상임이사 | 한·이 비즈니스협회 초대회장 |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 GLBH Holdings S.a.r.l 회장 | (주)케어라인 회장 | 라인기전(상해) 회장

<상훈> 한국산업포장수상, 다산경영상, 납세의 날 대통령상, 케어라인 '제10회 중소기업대상' 대통령상, 자랑스런 외대인상 외

<저서> 내가 연봉18억원을 받는 이유, 생각의 속도가 빨라야 산다 외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 FILA KOREA

제1537회 2월 21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2007년 4월, 휠라코리아는 10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며 전 세계 50여개국 1만여개의 매장을 보유한 세계4대 스포츠브랜드 휠라 본사를 인수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윤윤수 회장이 휠라에 입사한지 24년만의 일이다.

휠라코리아는 1991년 휠라의 한국지사로 출발, 설립 이듬해 15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이후 6년간 매년 50% 이상 성장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왔다. 엔리코 프레시 전 휠라 회장이 '휠라가 태어난 곳은 이탈리아지만 휠라를 꽃피운 곳은 한국'이라고 했을 정도로 윤 회장이 이끈 휠라코리아의 성장세는 무서웠다. 1990년대 중반 18억원의 고액연봉을 받아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리었던 그는 진실, 인내, 성실을 최고의 경영 비결로 꼽는다. 기업의 투명성도 이를 바탕으로 나온다고 믿고 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이란 리더의 엄격한 도덕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에 그의 경영철학이 주목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된 윤 회장은 이제 휠라의 글로벌경영을 화두로 제시하고 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위치를 다지기 위해 브랜드 고급화 전략과 함께 지주사가 있던 미국에서 3년 안에 매출을 4배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 그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한 달에 절반 이상을 해외출장길에 오르며 휠라의 신 글로벌 브랜드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윤윤수 회장을 초빙하여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휠라의 도전정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황농문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서울대 금속공학과 졸업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속공학 석사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속공학 박사 | 1986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임사, 물질량표준부 재료평가그룹 선임 및 책임연구원 | 미국 국립기술표준원(NIST) 객원연구원 | 일본금속재료연구소(NRIM) 객원연구원

<상훈> 한국과학총연합회 최우수논문상

<저서> 몰입 : 인생을 바꾸는 자기 혁명

몰입적 사고에 의한 창조경영

제1538회 2월 28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아프리카의 초원을 거닐다가 사자와 마주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이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갈까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을 것이다. 이 상태가 바로 몰입이다. 몰입상태에서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 능력을 발휘하는 비상상태가 발생한다. 자신을 초긴장 상태로 만들어 모든 것을 잊고 오로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잠재된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것이다.

이러한 몰입적 사고는 과학, 비즈니스, 학습 등 여러 분야에서 그 위력을 발휘해 왔다. 뉴턴은 중력의 법칙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물음에 '오직 그것 하나만 생각했다'고 했고, 아인슈타인은 '몇 달 몇 년을 생각하다 보면 99번 틀리고 100번째에야 비로소 정답을 찾아낸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는 1년에 두 차례 일주일씩 외딴 별장에서 사고 주간(Think Week)을 보내기도 한다.

몰입적 사고야말로 잠재되어 있는 우리 두뇌의 능력을 첨예하게 깨우는 최고의 방법이며 스스로 창조적인 인재가 되는 지름길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몰입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내 안에 숨어 있는 천재성을 이끌어내고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만나는 일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몰입(Flow) 전도사로 유명한 황농문 서울대 교수를 초빙하여 글로벌 기업들이 창조경영기법으로 도입하고 있는 '몰입적 사고'를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성과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인간개발



신년하례회 겸 제1531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선진한국의 미래와 한국인의 초상

1월 3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김태길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 신년하례 인사를 하는 장만기 회장

새해 벽두에 흔히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하는데, 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다. 건강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개인에게만 건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도 건강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가 있다. 각자가 한국 안에서 뜻을 이루려면 국가 전체가 건전해야 한다. 금년에는 새로운 대통령도 선출됐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나라를 경영하는 분들이 건강한 생각으로 나라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늘의 주제가 "선진한국의 미래와 한국인의 초상"이다. '선진한국의 미래'라는 말을 했는데, 과연 우리 한국은 선진국인가? 선진국을 지향하는 나라인가? 우리는 아직 선진국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선진국의 문턱에 와있는 상황이다. 선진국에도 경제선진국, 문화선진국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일반인들은 경제선진국을 먼저 떠올리지만 경제선진국에서 문

화선진국으로 나아갈 때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것이다. '한국인의 초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인의 인간상, 한국인의 인간으로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인의 가치관이다. 오늘은 이 가치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가치관을 평가하는 3가지 척도

'가치관'이란 무엇인가? 가치관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의식이다. 철학자들은 가치가 실재하는 것인지 독립해 존재하는 것인지 또는 다른 무엇에 관계하여 생기는 것인지를 다룬다. 인간의 심리 작용과 어떤 사물의 관계에 생기는 것이 가치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치는 따로 존재하기 보다 사물들과 사람의 감정이나 의욕들이 관계하는 가운데서 생겨나는 것으로 본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한 심리가 가치를 낳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된다.

가치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람들의 가치관은 평가의 심리에서 나온다. '이 음식은 맛이 있다 없다. 그 사람은 훌륭하다 그렇지 않다'는 평가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 평가하는 사람, 가치관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김태길이라는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김태길의 가치관은 그 자체가 평가의 대상이 된다.

가치관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의 척도가 있어야 한다. 평소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 첫째는 가치의 수명이다. 돈, 인격, 아름다움 등 가치가 있는 것은 수명을 가지고 있다.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수명이 오래 가는 것의 가치가 높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은 가치의 수명을 말해주는 좋은 명제이다. 어릴 때 나보다 두 살 위의 육촌형이 있었다. 당시 제일고보(경기고 전신)의 소문난 수재였지만 자신이 신봉하던 사상 때문에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감옥에서 폐결핵에 걸려 31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다.

그런데 이 형이 죽기 전에 동시를 써서 <감자꽃>이라는 시집을 냈다. 권태웅 시인이 바로 그다. 농촌의 질박한 정서를 그려낸 그의 동시는 동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의 고향 충주 탄금대에는 그를 기리는 노래비도 세워졌다. 그러나 일찍 세상을 떴지만 그는 아직도 <감자꽃>으로 우리 곁에 살아있는 것이다. 예술은 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두 번째 가치 평가의 척도는 가치가 가지는 혜택의 범위이다. 돈, 집, 지위 등 가치 있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줄 혜택의 범위가 클수록 가치는 크다. 가령 예술이나 사상은 혜택의 범위가 넓다. 공자의 사상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 사상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반면 100만원의 돈이 있다면 그 돈을 가진 사람에게는 혜택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혜택이 되지 않는다.

세 번째 가치 평가의 척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냐 수단이나 하는 것이

다. 건강과 장수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 건강한 몸이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다. 하지만 의약, 의술은 건강과 생명을 위한 수단이 된다. 이 때 자체가 목적인 생명과 건강은 수단이 되는 의약이나 의술보다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한국인의 가치관의 현주소

이 세 가지 척도에 비추어 한국인의 가치관이 건전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알 수 있다. 사람은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행동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가치관에 달려있고, 그 행동이 결국 우리 사회에 질서나 무질서 등 모든 사회현상을 만들어낸다.

사회현상은 행동에 의해 생기고, 행동을 좌우하는 것이 가치관이다. 그래서 행동을 건전하게 해 사회 전체에 도움을 주고, 발전에 기여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가치관을 건전한 가치관이라고 한다. 반대로 사회를 파괴하거나 병들게 하는 행동을 일으키는 가치관은 불건전한 가치관이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가치관은 건전할까? 개인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인의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경향에 불과하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척도를 동원해 한국인의 가치관을 살펴볼 수는 있다. 내가 보기에는 건전하고 훌륭한 가치관을 가진 분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인은 건전하지 못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가치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하는 그 가치관, 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에 따라서 건전한 가치관과 그렇지 못한 가치관으로 나뉘어진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할까? 한국인의 대다수는 소유의 극대화, 향락의 극대화 또는 권력의 극대화를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

가치관은 외면적 가치와 내면적 가치로 나눌 수 있다. 외면적 가치는 돈, 권력, 향락 등으로 수명이 짧고, 목적이기보다는 수단에 포함되는 것들이다. 내면적 가치는 우리의 인품, 인간의 자유, 평화, 예술적 창조, 심오한 학식, 탁월한 덕성 등을 말한다. 대체로 내면적 가치에 속하는 것들은 수명이 길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그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많다.

예술은 여러 사람이 나눠 가져도 각자의 몫이 중요하지 않다. 베토벤의 교향곡을 세계적인 악단이 연주하면 공연장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 기독교 사상을 믿는 사람이 많을수록 혜택이 커진다. 이에 비해 재산은 나눌수록 줄어든다. 1억원을 혼자 가지면 많은 것 같지만 100만원씩 나누면 한 사람은 100만원만 가지게 된다. 한국인이 추구하는 재물, 권력, 향락은 수명이 짧고 혜택이 적고 수단으로 쓰이는 것들이다. 한국인은 이런 외면적 가치를 더 선호한다.

그러나 내면적 가치로서 인격, 평화, 자유, 예술 등을 소중히 할 때 우

리는 남을 밀어내고 이기려 할 필요가 없어진다. 훌륭한 한 사람의 인격자가 된다고 해서 내가 인격자가 될 수 없는 그런 경쟁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학자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학식, 더 유식한 학자가 되는 사람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다. 내면적 가치에는 배타적 경쟁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정한 집단이 일정한 시기에 보유하는 외면적 가치의 총량은 피치 못할 한계를 가진다. 대한민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재산과 생산력

은 그 수치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권력의 자리도 그렇고, 향락의 기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국인 전체가 가지는 권력, 재물, 향락의 기회에 대한 욕심에는 한정이 없다.

이에 비해 건강과 장수, 사랑과 우정, 고매한 인력, 심오한 학식, 탁월한 예술가와 예술품 등은 각자의 소질과 인생 설계에 따라 총량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내면적 가치의 세계에 우위를 두고 인생을 영위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각자가 노력하면 건강한 사람은 100명도 될 수 있고 1000명도 될 수 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 총량은 얼마든지 증대한다.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내면적 가치의 세계로 관심을 돌리면 사회는 편안해진다. 따라서 외면적 가치에 속하는 가치관을 버리지 않는 한 외면적 가치를 에워싼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인간관계는 '만인은 만인의 적'이라고 묘사한 홉스의 비극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회가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건전하지 못하다고 본다. 그렇기에 우리 한국인은 외면적 가치에 치중하는 그릇된 가치관을 버리고 내면적 가치에 치중하는 가치관을 체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치관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전략

건전하지 못한 가치관을 건전한 가치관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치관은 인성교육으로 바꿀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아주 높지만 인성교육에 대한 열의는 없다. 지금의 교육열은 남을 물리치고 내가 승리자가 되려는 이기적인 교육에만 치중되어 있지 내 아이가 훌륭한 인품이 된다거나 남과 어울려 빛깔을 내는 교육에는 관심이 없다.

이는 내면적 가치가 아닌 외면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어느 날 TV를 봤는데, 30대 후반의 젊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교육

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사회자가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의 귀여운 아이가 남의 집에서 물건을 두드리는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그러자 한 젊은 엄마가 스스럼없이 내버려두겠다고 했다. 이유는 아이들기를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크지 않겠느냐고 묻자 아이가 들면



저절로 알게 된다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남에게 피해를 주는 습관은 커서도 남을 배려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가르쳐야 한다. 기를 살리게 내버려둔다는 것은 아동심리를 잘 모르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은 크게 힘쓰지 못하고 있다.

어느 중학교 선생님께 물어봤다. 그 분은 모든 교과목에서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 물어봤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유는 학부모들이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성교육이 입학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가르쳐서 뭐하냐는 것이다. 인성교육을 하고 싶지만, 학부모의 반대와 교장의 지시로 인해 자연히 소홀하게 된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인성교육에 역점을 둔 학교 중에도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교가 있다. 민족사관학교와 구미고등학교이다. 구미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인성교육이 되면 학생들이 알아서 공부를 하고, 또 공부의 중요성을 깨달아 자연히 열심히 해서 입학시험 성적도 좋아진다고 했다. 민족사관학교 교장선생님은 오히려 인성교육에 힘쓰면 입시경쟁에서 손해 본다는 생각은 잘못된 억측이라고 했다. 인성교육을 통해 사람이 되는 동시에 좋은 대학에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인성교육은 첫째, 나이가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람은 4~5세 때부터 성품의 바탕이 생기기 때문에 굳어버리면 인성교육이 어렵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인성교육을 해야 하고, 초등학교에 가서도, 유학을 가서도 계속해야 한다. 인성교육은 어려서 하는 동시에 또 평생교육으로서 사회에 나간 다음에도 자기교육, 나 자신을

교육시키는 평생학습 수양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는데, 교육 전문가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잘못된 점이 바로 인성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인성교육의 핵심은 가치관 교육이다. 따라서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 인간개발연구원의 이런 모임도 인성교육이다. 어렸을 때는 인성교육을, 사회에 나와서는 사회교육을 통해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 또한 자기 수양을 통해 평생 해야 할 것이 인성교육이다.

인성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는다는 것은 경쟁에서 지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다. 인성교육을 통해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은 어디에 가든 대접을 받는다. 훌륭한 인성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간 사람들은 삶 전체에서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많다. 인성교육을 한다고 해서 입학시험에서 불리하고, 인생 낙오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건전한 가치관 가진 세력이 늘어날 때 희망 있어

사람들은 대개 한 두 가지의 좋은 능력을 타고난다. 그 개성을 살려서 성실하게 노력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한 목표를 이루게 될 것이고, 자존심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가치관 교육을 위해서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양육과 교육도 필요하다. 국가의 질서와 국민의 인권 및 재산을 지키며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정치계와 교육계, 그리고 종교계 지도자들의 말은 바 임무도 중요하다. 지도계층의 인물들도 물론 내면적 가치가 외면적 가치보다 중요하다는 인생관에 투철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되는 날 인간사회는 밝고 자유로운 세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치관 교육을 핵심으로 삼는 인성교육을 이룩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바람직한 문화적 선진국으로 건설하는 일이 매우 먼 곳에 있는 이상으로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성공적 가치관 교육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먼 곳에 있는 막연한 목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목표가 저절로 실현되지는 않는다. 생각에서 앞선 사람들이 거국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노력해야 한다.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 그 사람들의 참여와 협조도 매우 중요하다.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이 없듯이, 완전히 건강한 국가도 없다. 그러나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세력이 늘어가는 국가는 희망이 있는 국가이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끝으로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젊어서의 인성교육이나 가치관 교육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존중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대책이 없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되 나를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나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내가 무엇이나 하는 범위를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김태길'이 누구냐 하면, 먼저 내 신체를 생각한다. 내 신체는 내 자아 '김태길'의 일부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신체가 자아의 전부는 아니다.

우리는 내 몸보다 더 아끼는 것이 있다. 내 명예와 내 인격이 바로 그것이다. 인격이 모욕당하면 몸이 모욕당하는 것보다 화가 날 수 있다. 나의 인격도 나의 일부이고, 나의 명예도 나의 일부이다.

'나'라는 자아가 무엇인가? 자아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체계가 아니라 의식의 체계이다. 예를 들어 가난한 집안에서 형제가 사과 하나를 가지고 서로 먹고 싶어 눈독들이고 경쟁을 할 때, 형제는 '너'는 '너'이고 '나'는 '나'이다. 하지만 외국과의 운동경기를 하며 '대한민국'을 외칠 때, 우리 자아는 굉장히 커진다. 사과 하나를 가지고 싸우면 우리의 자아는 작아지지만 국제경기를 응원할 때의 우리 자아는 한 민족 전체로 커질 수 있다.

자아의 범위가 넓은 사람을 우리는 위인이나 군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자기 하나만 아는 사람을 우리는 소인이라고 부른다. 소인과 군자의 차이는 평소 많은 범위를 자아 속에서 느끼느냐에 달렸다.

우리는 평소에 큰 범위를 갖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아의 범위가 컸다가 줄었다 하는 의식의 체계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아가 평소 큰 범위를 가진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하면서 싸우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그런 면에서 가장 훌륭했던 사람이 철학자 스피노자이다. 스피노자의 철학을 요약한다면 하나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의 실체는 하나다.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짐승도 있지만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모든 만물은 하나의 세계다. 또 하나는 우주 만물 속의 여러 현상은 필연 불가피한 인과관계로 생긴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일은 필연 불가피로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서방, 김 서방, 박 서방으로 나누어지지만 전체의 일부인이라는 것이다. 나무에 비유하면 우리는 나무의 잎사귀이다. 그러니 내가 더 먹겠다, 가지겠다는 것은 나무의 잎사귀들이 더 일광을 받겠다, 수분을 더 받으려고 잎사귀들과 경쟁하는 것과 같다.

애인에게 배신당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나 자녀로부터도 배신당할 수 있다. 배신당하면 굉장히 섭섭하겠지만 배신하는 사람은 배신할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의 결과이므로 우주 전체의 책임인 것이다. 그러니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할 까닭이 없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일소일소 일노일노(一笑一少 一怒一老)라는 말처럼 우리가 한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게 된다. 모든 원인은 필요불가결로 생기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



"청년실업, 대학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인문학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볼 수 있어요. 인문학의 위기가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인문학이 소중하다는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최근 대학에 시장논리가 접목되면서 인문학 분야가 위기에 몰렸다는 질문에 허상만 이사장은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 등 모든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최근 인문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05년 12월, 허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시작된 변화다. 허 이사장은 대중과 소통하는 인문학이 돼야 한다는 생각에 '인문주간'을 만들고, 인문학계 10인의 석학이 참여해 50강좌를 진행하는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한편 재단은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2년 전 최하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과다. 다른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오기도 한다. 경영혁신 노력과 지식경영 구현이 일궈낸 결실이다.

인문학적 토양 위에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허상만 이사장을 만나 인문학의 지원 배경, 위기 극복 방안과 함께 인문학과 과학의 균형발전에 대한 견해를 들어본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사진 오경근 원장

인문학과 과학은 날줄과 씨줄 상호 발전 위한 연구지원에 주력

허상만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학계에는 잘 알려져 있지만 일반에게는 다소 생소한 기관인데요. 간단하게 재단 소개 좀 해주시죠.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정부 출연 학술연구지원기관입니다. 1981년 설립된 이래 27년간 연구활동 지원, 연구인력 양성 및 연구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왔죠. 우리나라 정부부처 산하의 12개 연구지원 기관 중 유일하게 학문 전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문학 분야를 지원하는 국내에서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재단에서 한해동안 연구활동에 지원되는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2007년의 경우 약 1조원의 예산을 연구자들에게 지원했습니다. 구체

적으로는 기초연구과제 지원사업을 포함한 4개군 22개 사업으로 구성된 학술연구조성사업에 3천7백억원이 지원됐어요. 대학원의 연구혁신을 통한 국가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두뇌한국21(BK21)사업에는 2천8백억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지방대학신역량강화(NURI)사업에는 2천5백억원이 지원됐죠. 이 외에도 장학지원 등 기타사업에 1천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중 인문학에 지원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요.

학술연구조성사업의 3천7백억원 중 인문학 분야에 지원되는 예산은 약 850억원으로 23% 정도 됩니다. 그러나 재단이 인문학 분야를 지원



■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

처 축적해 온 학문적 성과를 관련분야 학자, 지식인, 일반 대중에게 알기 쉽게 소개하고 후학들이 지향해야 할 전범을 제

시하고자 기획된 겁니다.

아울러 인문학에 관심 있는 일반 대중에게도 석학의 연구성과와 문제 의식을 공유하여 인간과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할 기회를 제공해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소양을 넓히는데 기여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임택 성균관대 한문학 교수, 김남두 서울대 철학 교수,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 교수의 강연을 각각 5주간 총 15개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강좌가 진행될수록 일반 대중들의 인문학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매회 서울역 사박물관 대강당을 가득 메울 뿐 아니라 강연동영상 제공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6년 8월부터 2단계 'BK21사업'과 'NURI사업'을 재단에서 전담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재단은 교육부와 함께 2단계 BK21사업과 NURI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2단계 BK21사업은 73개 대학 567개 사업단(팀)을 선정해 과학기술과 인문사회분야에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 동안 연간 2천9백억

원씩 총 2조30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제도개혁을 유도해 기존 학부 중심의 서열화 구조를 탈피하고, 명실상부한 연구중심대학의 기반을 다지도록 할 계획이죠. 특히 지원하는 사업비의 70~80% 이상이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에 직접 지원되고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NURI사업은 Bottom-up 방식으로 128개 사업단을 선정하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총 1조2천400억원을 지원해 지방대학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지방대학의 특성화된 학부(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또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지역 밀착형 인력양성에 노력하고 있는 점이 여타 지원사업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BK21사업과 NURI사업을 보다 효율적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2006년 8월 1일부로 'BK21·NURI사업관리위원회'를 조직했어요. 이를 통해 해당 사업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업평가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BK21사업'과 인문학간에 접목되는 분야도 있을 것 같은데요?

BK21사업은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인문사회분야의 61개 사업단 77개 사업팀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뿐 아니라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등 문화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창의적인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거든요. 재단은 BK21사업을 통해 문사철로 대두되는 인문학분야 학문후속세대를 적극 양성하는 등 인문학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URI사업'과 관련해 지방대학 활성화라는 과제의 근본 출발점은 어디라고 보시지요.

NURI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지방대학의 낮은 경쟁력으로 졸업생의 취업기회 부족, 이로 인한 우수인재의 수도권 유출, 인재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국가 균형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었습니다.

재단은 NURI사업을 통해 지방대학에 집중 투자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켜 최종적으로 국가균형 발전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방대학 활성화의 출발점 역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 구조로 재편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지방대학은 NURI사업을 통해 연구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미래형 산업 환경에 맞는 실질적인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형성할 수 있는 리더십의 중추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기획예산처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압니다. 어떤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셨는지 자랑 좀 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 우리 재단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하위 성적을 받은 지 2년만에 거둔 성과라는데에 큰 의미가 있죠.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된 가운데, 비전과 리더십, 경영혁신, 사업관리, 보수노사관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2006년도 공공기관 혁신평가 결과가 그대로 반영된 경영혁신 부문은 만점을 받았습니다. 혁신평가 결과, 혁신수준은 전년도 혁신



■ 2단계 BK21사업 2차년도 평가지표 개발 공청회



■ 2007년 9월 열린 NURI사업 정책포럼

신성과 미흡수준(3단계)에서 혁신 선도기관 수준(5단계)으로 단숨에 뛰어 오르기도 했죠.

한편, 평가 주관부처인 기획예산처는 2006년 재단이 추진한 '정부산하 기관 최초 전체 보직에 대한 직위공모제 실시', '지식조직화를 통한 지식경영 구현',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등을 우수 사례로 선정해 전 국민을 상대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외 많은 기관들이 재단을 찾아 벤치마킹하고 있고, 실제로 적용한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얻은 자신감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7년 한해 재단은 한 차원 높고 내실 있는 경영혁신 노력과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2007년 평가를 앞두고 있는 현재, 이 결과가 혁신평가 최고단계(6단계) 진입, 경영실적평가 1위 유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지식경영이 2007 피터 드러커 혁신상 공모에서 '평생학습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 재단은 2007 피터 드러커 혁신상을 수상했다.

맞습니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재단 고유의 지식경영 프로젝트가 지식경영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재단이 추구하는 지식경영의 핵심은 내부 구성원의 지적 수준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고

객에게 양질의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식정보센터를 설치해 지식경영의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식을 매개로 내부 직원과 고객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죠. 그 결과, 기초학문자료센터(KRI) 구축, 한국형 SCI라 불리는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구축, 국가연구업적통합시스템(KRI) 구축 등 국내 어느 기관도 시도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지식정보시스템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부서 1학습조직, 정부산하기관 최초 사내 MBA과정 등 평생 학습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로써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역량도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1인 연평균 학습시간이 120시간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단 직원들이 직접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국제학술대회에서 업무와 관련된 논문도 발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죠. 지난 연말 국제정보서비스 표준인 ISO20000 인증을 획득한 것도 지식경영의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인문학과 과학의 균형발전이 중요

할 것 같은데요. 두 분야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인문학과 과학기술이 서로 유리되어 왔다면, 지식정보화시대에는 이들의 융합이 더욱 절실하며 중요해질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문학과 과학은 베틀의 '날줄과 씨줄'에 비유할 수 있겠죠.

사람마다 정의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인문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윤리와 도덕기준을 제시해 주는 이른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 정신'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반면에 과학은 눈에 보이는 사실 그 자체를 중요시하죠. 즉, 인문학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가에 천착합니다.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고 사색적인 특징을 지닌 인문학의 위기는 곧 사회의 위기가 되는 겁니다.

또한 인간의 통합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인문학적 토양 위에서 과학기술의 발전도 지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인문학적 상상력은 과학기술 현장에서도 때때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과학기술이 보다 발전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사고의 유연성이 절실히 필요하며, 그 인문학적 가치와 가치를 공유하면서 비로소 새로운 과학문명과 신기술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은 인간 내면의 무한한 상상력과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원동력으로, 과학은 이를 바탕으로 인간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기술문명을 개척해 나가는데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장님께서서는 강사로 참여하시는 등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2008년 33주년을 맞는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2004년 농림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연구원의 조찬세미나에서 강연한 기억이 납니다. 그 후 지방자치아카데미를 통해서도 몇 차례 강연을 했었죠. 조찬세미나 강연을 하면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경영자들의 뜨거운 학습 열기에 존경과 함께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런 오픈미언 리더들의 학습의 장을 33년간 지속해오신 연구원의 업적은 인재개발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지식정보화시대에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큰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30년을 기점으로 앞으로도 인재개발에 대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사회 각 분야 발전의 초석이 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정리 · 정용달 탐장 dal2020@kndi.or.kr

허상만 이사장

1943년 생으로 전남대 농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 작물학 석사, 전남대 잡초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순천대 교수, 미국 미주리주립대 초청교수를 거쳐 98년부터 02년까지 제3대 순천대 총장을 역임했다. 03년부터 05년까지 54대 농림부 장관을 지냈다. 현재 (사)통일농수산사업단 상임대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연구지원기관기관장혁신포럼 의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CEO는 카멜레온이다

박완순 밌아카데미 원장

언 제 비로 변할지 몰라 농부의 속을 태우는 가을구름. 머리 한 구석을 차지한 이 가을구름 같은 경영에 대한 조바심으로 얼마나 생각이 많은가? 혹시 기업 생존의 화두가 되어버린 변화, 개혁, 혁신 작업에 동참하여 이리저리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그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이제 가을구름의 일부라도 걷어내 보자.

기업과 사람의 작동원리는 동일한 것

흔히 CEO를 최고경영자라고 한다. 그러나 그 단어만으로는 CEO의 본성을 표현하기에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급변하는 수많은 환경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여 해결책을 찾아 적용하는 다양한 능력의 보유자, 그것으로부터 힌트를 얻어 CEO를 카멜레온(Chameleon)으로 정의해 보자.

카멜레온적인 능력을 보유한 리더의 덕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냉정한 도살자
- 카리스마를 지닌 자
- 투명인간 능력 보유자
- 정신적인 모델
- 조직의 날라리
- 꿈꾸는 몽상가
- 조산원의 산파

이상과 같은 변화 무쌍한 CEO의 모습 중 개혁, 혁신과 관련된 '냉정한 도살자'가 가장 우선시 되는 덕목이 아닐까.

기업이나 조직을 '法人'이라고 한다. 이 말의 의미는 기업을 사람의 기능을 닮은 생명체로 인정하여 법으로 인격을 부여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기업의 작동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사람 몸의 구성을 주도하는 DNA의

주요 임무는 20%의 세포조직이 온전하게 작동하도록 80%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다.

인간 몸에서의 DNA와 같은 역할을 조직에서는 CEO가 수행해야만 한다. CEO를 조직의 DNA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CEO가 조직원을 관찰하여 육석을 가리는 기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것이 조직 성패의 열쇠가 된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러한 관찰 기준사항이 가정과 학교교육을 통하여 충분히 숙지되어 몸에 익은 상태로 사회로 배출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면 기업교육을 통해 확실하게 다지는 한편 위만 시에는 냉정하게 제거해야 한다.

기본 틀(Form)이 갖춰져야만 개혁(Reform)을 통한 발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본 없이 자꾸 변하려고만 하면 추상(De-form)이 되어 오히려 조직을 해치기 때문이다.

경영자의 관찰과 선택 행위의 기준

CEO의 관찰과 선택시 참고해야 할 조직과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 다섯 가지를 짚어 보자.

첫째는 환경변화에 적응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더위에 땀을 흘리고 추위에 옷깃을 여미듯 기업도 주변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한다. 문제는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구성원들의 정신 자세다. 인간의 성장은 대개 3단계로 구분된다. 7~8세 이전의 어린이 시절, 20대 중반까지의 학생시절, 그 이후 사회생활을 하는 조직인의 단계이다.

동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육체적 변화만을 하는데 반해 인간은 호칭은 물론 정신적 성숙까지를 동반하는 진정한 의미의 변태를 하게 되며, 이들만이 조직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



박완순 원장

1953년 생으로 고려대 농경제학과와 동대학에서 언론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호서대 서비스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교수, 육군 지휘관반 인성교육 전문교수, 청와대 대통령경호실 혁신자문위원, 청와대 101경비단 개혁자문위원, (사)한국평생교육강사연합회 자문위원, 인천공항 서비스 심의위원을 맡고 있으며,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이 선정한 국내 명강사에 선정되기도 했다.
wspark127@hanmail.net

었다고 할 수 있다. 관찰 주안점 대부분이 이 정신자세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둘째는 치열한 생존경쟁이다. 많은 이들이 전문지식 습득 위주의 교육으로 이 부분에 매우 취약하다. 조직원에게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와 제일 선호하는 직장을 물어보면 대부분 미국, 스위스, 뉴질랜드 등 통상적으로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를 거론하고, 시중에서 통용되는 대기업의 이름을 덜 것이다. 그 중 과연 몇 %나 대한민국과 현재 몸담고 있는 직장을 말할까? 그 답변을 듣고 무엇을 느끼겠는가?

정부가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임을 홍보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노력과 경영자가 조직원의 복지 후생을 위해 불철주야 고민하는 노력을 구성원인 그들이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행위이다. 이는 마치 축구선수가 많은 응원단 앞에서 자살 꼴을 의도적으로



직인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자존심을 깨닫게 해야 한다. 이것이 기업과 조직의 문화를 형성하는 기본 뿌리이다.

셋째는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사실이다. 돌리라는 양의 복제를 성공한 적이 있었다. 어미 돌리의 살점을 떼어 내어 그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한 체세포 복제로 완전한 돌리를 만들어냈다. 그것이 가능했던 배경은 DNA가 RNA를 시켜 세포합성을 하는데, 그 세포가 다시 DNA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기체는 피한 방울 살 한 점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 조직 또한 마찬가지이다. 조직원 한 명의 선행이 조직의 명예를 높이는 것처럼 그의 실수 또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모두 그 조직을 대표하는 권한대행 사장인 것이다.

넷째는 신진대사를 한다는 것이다. 조직의 쓴맛이라는 게 뭘까? 전문적인 기술이나 업무능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기본적인 정신자세가 갖춰지지 않으면 제거해야 한다는 뜻이다.

능력은 훌륭하나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정신자세가 결여되어 있다면 경영자는 대체세력을 확보할 때까지는 업무 공백을 우려해 참고 견딜 것이다. 그러나 인력이 확보되면 조직 전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단호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신자세가 갖춰지지 않은 구성원은 업무수행 능력이나 기술보유 유무에 관계없이 필히 내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조직의 생리, 이것이 조직의 쓴맛이다.

다섯째는 정보체계가 완벽하다는 것이다. 혹시 전화를 받을 때 "여보세요?"부터 시작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자. 그러면 상대방은 확인을 위해 "어디신가요?"하며 되묻게 되고, 서너 번 물은 뒤에야 본 용건으로 들어가게 된다.

집 나서는 아이가 어머니에게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어머니는 대어섯 번의 질문을 던져야 궁금증이 풀리고 허락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행동의 반복이 시간과 정보 사용료의 낭비를 초래한다.

신체구조상 뇌에서 기관으로 내리는 정보를 '지시'라 하며, 거꾸로 뇌로 올려 보내는 모든 정보를 '보고'라고 한다. 우리 몸은 이러한 보고와 지시업무 수행을 동시에 행하고 있다. 조직의 구성원 역시 이 원리를 철저히 따라야 한다.

모든 지시와 보고 시 상대방이 원하는 정보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육하원칙에 의거 동시에 전달해야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가정과 학교에서 정보전달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 결국 기업에서 그들에게 다시 정보전달 요령을 교육시켜야만 하는바 여기에는 시간과 인원, 경비가 소요되며, 이는 곧 경쟁력과 직결된다.

1997년 대한민국이 IMF의 지원 하에 놓였을 때, 그들이 한국의 경쟁력을 매우 낮게 평가한 근거가 이러한 정보전달 체계의 사전학습교육 부족을 간파한 것이라고 하니,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상과 같이 경영자의 관찰과 선택 행위에 기준이 되는 인간과 기업의 기본 특징 5가지를 알아봤다. 카멜레온적인 업무능력이 필수적인 경영자들의 리더십 발휘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KIM**

넣는 경우와 같다.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생존경쟁의 기본 개념을 가정, 학교에서 부모와 선생님을 통하여 제대로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진국과 후진국 국민의 차이, 선진기업과 후진기업 조직원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생존경쟁의 논리를 몸으로 익힘과 동시에 그들이 조직에 대해서 가지는 최대의 권리가 조직을 떠나는 것이며, 그런 행위 이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과 자신이 속한 조직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인지시켜야 한다. 또한 이것이 곧 정신적 성숙을 거친 조



제558회 장성군 '21세기 장성아카데미' 1월 3일(목)

지역사회 발전과 언론

김영호 우석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실시하여 민선 4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금까지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아카데미 프로그램인 전남 장성군(군수 이청)의 '21세기 장성아카데미'는 한 주도 거르지 않고 12년째 계속되어 사회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장성아카데미는 전국 80여개 자치단체에 새로운 아카데미가 개강하는데 산파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에 장성아카데미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는 신념이 일구어낸 값진 성과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원과 장성군은 장성아카데미의 전통을 이어갈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지자체특강에서는 지난 1월 3일 "지역사회 발전과 언론"을 주제로 제558회 강연을 해주신 김영호 우석대 교수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장성군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알고 있었다. 첫째는 장성아카데미의 명성이고, 두 번째는 장성의 캐릭터인 흥길동이다. 요즘 TV드라마에 흥길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장성에서 대표적인 캐릭터로 브랜드화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4~5월에 흥길동축제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 때까지 드라마가 끝나지 않는다면 축제에 드라마 출연진을 초대해서 여러 이벤트를 마련하면 장성과 드라마 제작진간에 윈윈전략이 될 것 같다.

PR시대 정부와 언론 적정거리 유지해야 발전 가능

현대사회를 PR시대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PR을 일컬어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는 말로 해석하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PR의 속성을 잘 꿰뚫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다. 아무튼 개인이나 국가, 지역이나 그 안의 학교, 기관, 회사, 동네 안의 작은 슈퍼마켓이나 식당마저도 PR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PR을 하다보면 불가분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면 매스 미디어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 꼭 매스가 아니라도 요즘은 인터넷이 가능하므로 어떤 형태라도 미디어와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나 미디어라는 것이 항상 내편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장성군청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있었고 정말 사심 없이 잘 해보려고 했으나 미디어 쪽에서는 싸늘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인신공격에 가까운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언론에 피해의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 좋은 일이나 자기가 원하는 소식은 조금밖에 실어주지 않고 악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론에 거리감을 두려고 한다. 이것은 지방사회의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오늘의 주제가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언론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이다. 언론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고, 지자체는 언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서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지 살펴해보려고 한다.

먼저 A, B라는 삼각형 두 개가 있다. 각 삼각형 상단의 꼭지점은 지향하는 목표점이다. 양쪽 꼭지점들의 한쪽은 정부, 한쪽은 언론이다. A삼각형에서는 정부와 언론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다. B삼각형에서는 정부와 언론의 거리가 멀다. 정부와 언론의 거리가 가까우면 발전이 빠르지만 거리가 멀면 성장이 느리다.

그런데 A모델은 정부와 언론이 가까운 만큼 삼각형이 불안정하다. 바람이 불면 옆으로 넘어질 것만 같다. 반면 B모델은 떨어져있어 안정적이긴 하지만 속도가 없고 변화도 없다. 우리가 겪었던 5공 시절과 유신 치하에서는 B모델이었을 것이다.

A모델은 현 정부와 같다. 현재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이라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정부와의 관계가 A모델이다. 그러니 되는 일이 없다. A모델도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정부와 언론, 지역으로 말하자면 지역단체와 언론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군수가 하는 일에 찬사만 보내면 군민들 여론도 따라오는 것 같고 좋아 보이지만 어떤 일 하나만 터져도 타격이 매우 크다. 너무 멀면 무엇을 했는지도 모른다.

결국 정삼각형일 때 즉, 적정한 거리가 있을 때가 가장 좋다. 이 때가 급속도의 불안정한 발전이 아닌 안정적이 발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거리가 어느 정도가 좋을지는 사실 누구도 알 수 없다. 모델로써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거리를 수치화 할 수는 없다. 정부는 집행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지역의 언론은 그 지역을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영호 교수의 강의를 경청 중인 군민들

지방정부, 언론, 대학, NGO가 여론 형성하고 서로 견제해야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축이 있다. 어느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군청에서만, 군수만 잘 한다고 해서 발전되는 것이 아니다. 세 가지 정도 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첫째는 지방살림과 행정을 책임지는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둘째는 지역에 있는 언론이다. 셋째는 지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이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면 건전한 시민사회단체, 시민운동, NGO 등이 있는데, 이들이 뭉쳐서 지역 여론을 만들어 가고 서로의 독주를 견제하면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과거에는 모든 결정을 중앙정부가 했으나 95년부터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면서 집행부가 구성되었다. 주민의 손을 통해 뽑은 단체장이 책임지고 지방을 끌어가는 것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다. 좋은 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예를 들어 장성에서 어디에 투자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장성군력을 집중해서 투자했는데, 이렇다 할 결과를 못 얻으면 그 책임은 군청에서만 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책임져야 한다.

일본 홋카이도에 장성 만한 도시가 파산을 했다. 시 하나가 부도나면서 공공요금 등이 다른 지역과 달라졌다. 버스회사에 나갈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1천원 하던 요금이 2~3천원이 되고, 독거노인들에게 주던 지원금이나 복지수당도 없어졌다. 학교의 학생들도 다른 지역으로 모두 떠나버렸다. 그 지역은 폐광지역이었는데, 지역을 살리기 위해 테마파크도 만들고 전력을 다해 투자했었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분명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냈을 것이고, 주민들에게 알려져서 충분한 동의를 얻었을 것이다. 정말 그렇다면 책임도 나눠져야 한다. 만약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단체장이 독단으로 끌고 가다가 벌어진 일이라면 주민들은 공연한 피해를 입는 것이다. 여기서 이것을 적절하게 견제해줄 수 있던 것이 언론이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런 것이 지방자치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자치를 선거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내려야 하는 모든 결정에 참여하고 그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잊고 있다. 군수를 뽑고 의원을 뽑는 것만 지방자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참여를 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한다. 막걸리 집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수준도 여론은 여론이다. 그런 여론이 정책에 반영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여론을 통해 제동을 걸기 위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미디어이다.

미디어라는 것은 옷을 살 때 '미디어(Media)'이라는 중간 사이즈를 나타내는 단어에서 비롯된 말이다. 누군가에게 매개체가 되어주는 것인데, 언론이란 말이 붙은 것은 말과 글로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데서 비롯된 말이다. 어떤 경우 미디어이긴 하지만 언론이 아닌 것이 있다. 대표적인 예는 인터넷이다. 여러 소식을 전해주지만 시시비비는 가리지 않는다. 신문은 언론이다. 방송의 경우 뉴스는 언론이지만 오락프로그램은 미디어이다.

지역언론의 선순환구조 만들어야

우리나라에 있는 일간지 숫자만 133개이다. 그 중 100개사는 지역신문이다. 70% 정도가 지역 일간지이다. 지역의 주간신문도 전국적으로 480개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발행되는 것은 350~360개 정도이다. 신문 구독자 조사결과를 보면 중앙지가 77.3%이다. 70%를 차지하는 지역일간지의 시장점유율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다.

전국시장을 보면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가정이 56%, 구독하는 가정이 44%이다. 관청이나 기관에서 구독하는 것은 뺀 수치이다. 지역 일간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5.7%이다. 그런데 총 합이 100%가 넘는다. 중복 구독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조선일보가 31.5%, 중앙일보가 25.1%, 동아일보가 23.3%이다. 이 세 신문만 합해도 80% 정도이다. 이것이 우리 신문의 현실이다.

지역신문들이 어떤 때는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사실 굉장히 두통거리이기도 하다. 신문시장이 너무 난립되어 있어서 그렇다. 신문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10%도 안 되는데 가짓수는 100여 개씩 되니 이론적으로 따지면 한 신문이 가지는 점유율은 1%도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지역신문들에게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입장도 신문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하고, 공무원의

김영호 교수

1953년 생으로 연세대 신방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신방과 석사, 한양대 신방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 우석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보사 주간, 입학처장, 언론광고심리학회 학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북일보 논설위원, 지역언론연구소 소장, 호남언론학회 회장, 지역언론연구회 회장, 중앙일보 독자위원회 위원장, 지역언론개혁연대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경우 관계를 맺더라도 어렵고 불편하게 맺으려 한다. 물론 거기에는 언론이 잘못된 부분이 크다. 한편으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중앙집권적인 전통이 강했기 때문이다. 독일이나 미국은 시작부터 합중국이다 보니 담배 값도 주마다 다르다. 그 정도로 지방분권이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지방자치라는 말이 나온 것은 불과 10여 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 모든 관심사가 장관이 누가 되는가, 도지사가 누가 되는가에 머물게 된다.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시대가 바뀌어도 그 사고방식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신문을 읽어봐야 항상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고, 읽을거리도 없다고 생각한다. 독자가 없으니 지방신문은 경영이 어렵고 무리수를 두고 버림받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결국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사를 방치할 수 없다. 장성군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브랜드가 무엇인지 지역 여론을 만들어서 전파해야 하고, 이것이 지역의 이익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해 줄 것이 지역 언론이다. 그래서 지역 언론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지역혁신을 위한 신문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 문제는 신문만이 아니라 공직자들에게도 적용될 이야기이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라는 말을 많이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는 미국, 중국, 일본과 국교를 맺는 국가간의 시대였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아닌 인터넷의 시대이다. 장성군과 비슷한 미국이나 중국의 어느 도시와 직접 관계를 맺는 시대인 것이다. 장성에서 많이 생산되는 상품을 이 상품의 생산이 적은 도시로 유통시키면 그것이 바로 인터넷이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홍길동이 과연 국내에서만 머물 것인지 월트디즈니의 미키마우스처럼 전 세계적인 캐릭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영국의 로빈훅 하면 모두가 안다. 홍길동과 로빈훅은 다를 게 없다. 홍길동도 세계적 캐릭터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국내적인 것에만 머물러있으면 안 된다. 가장 세계적인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지역혁신을 위한 아젠다 설정에서 지역에 어떤 아젠다를 설정하는가가 중요하다. 조선시대에는 국가 세수의 절반을 전라도에서 부담했다. 해산물이 풍부하고 농산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전라도가 일제시대와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낙후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21세기인 지금 20세기의 산업화 모델을 가지고 뒤따라간다면 영원히 뒤만 쫓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산업화를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한다. 크게 보서는 전라도 전체가 작게 보서는 장성군처럼 기초 자치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관광지의 경우 관광지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관광지만 있는 것은 전혀 다르다. 제주도에는 만장굴이나 용암동굴 등이 있는데, 그런 천연 동굴이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선정되었다. 이런 성과를 올린 것은 제주의 어느 신문사가 선도를 하고 자치단체가 호응하고 주민들이 합의하고 서명하면서 끊임없이 접촉하고 외부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이루어낸 작품이다.

작년에 독일에 갔을 때 어느 작은 마을이 유명 관광지로 발전해있는 모습을 봤다. 하지만 그곳은 일반적 상식으로는 관광지도 없고 특별한 경치나 유적도 없는 마을이었다. 그런데 이런 마을이 관광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래된 건물에 스토리를 붙여서 그 건물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후에 어떻게 되었고, 어떤 갈등이 있었고, 출세해서 무엇을 했다는 식으로 별 것 아닌 내용을 적어 놓았다. 이들의 설명을 듣다보면 뭔가 이야기가 된다. 이것이 100%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문화산업에서 갈망하는 스토리텔링의 문제가 된다. 우리도 홍길동 생각을 단순히 생각로만 비추는 것이 아닌 스토리텔링을 하고 이어서 제3의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서 상품으로 재조명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다양한 여론 유통구조 만들어 상생발전 모색해야

정부가 신문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아해한다. 언론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언론을 지원하는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그 궁극적 목적은 신문사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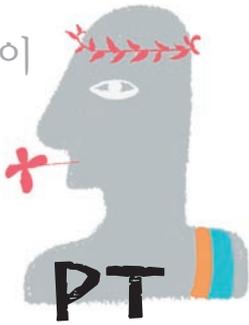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여론이 다양하고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데 90%가 중앙지인 상황에서는 여론이 만들어지기 힘들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돌아가고 지역발전을 위해, 그리고 지역주민의 참여형 발전으로 가기 위해 지역 신문사들의 힘을 키워준다는 취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물론 문제를 가진 언론도 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한다. 주간신문의 경우 전국 360개 중 40개 신문을 매년 선정해서 지원한다. 일간지는 100여개 중 20개를 선별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 5가지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 어떤 경우 신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곳도 있었는데, 최소한 신문사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각종 지역신문이라면 따라 다니던 비리나 불법도 감소했다. 음성적인 유착관계도 많이 근절되어 가고 있다. 기사의 질적 수준과 지면도 많이 변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근무하는 분들이 언론인으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게 된 것이다.

지역신문은 지역 주민들의 사랑과 애정이라는 비료를 먹고사는 나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여러분이 아껴줘야만 또 내 고장상품 사랑하는 것처럼 해야만 지역신문이 살아날 수 있다.

항상 보도가 바르게만 나간다고 볼 수 없다. 고의로 혹은 실수로 오보가 있을 수 있다. 굴지의 신문사도 오보는 나간다. 예전 같으면 전화로 항의하거나 찾아가서 따지고 했지만 지금은 법적으로 대응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제도를 넘어 지역과 언론이 상생적 발전모델로 가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 

“사람만이
희망”



인간기술(PT)의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자

인간개발연구원 창립 33주년에 붙여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지구와 그 위에 실현된 모든 충만(充滿), 태양 달 그리고 여러 행성(行星), 밤마다 창공(蒼空)을 장식하는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은 시간(時間)의 육지(陸地) 위에 하나님의 손이 가꾼 정원(庭園)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간의 자궁(子宮)으로부터 불려나와 이 세상이라는 정원에서 자리를 잡았다. 우리는 이성(理性)의 존엄(尊嚴)과 자유의지(自由意志)의 신성한 힘을 부여받았다. 우리는 시간을 정복하고 제압해서 그 광대(廣大)한 원료(原料)로부터 우리 자신의 인생을 창조(創造)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해가 우리 지상경력(地上經歷)의 서쪽에서 질 때 우리가 자랑스럽게 하루하루의 날들을 지적하며 '보라! 이것들은 우리가 주인인 하루하루의 날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날들이 지나갈 때 하나씩 차례로, 장악(掌握)하고 그 하루하루의 날들을 우리 미덕(美德)의 하인(下人)이 되게 하고 우리 활동(活動)의 머슴이 되게 하고 그 하루하루의 날들에 신성(神聖)한 생활을 표시하는 우리 품행(品行)의 도장을 찍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맥아더 장군이 그의 사무실 액자에 넣어 놓고 매일의 교훈으로 삼았던 그 유명한 '靑春'이라는 시의 작가 사무엘 울만이 1877년 신년축하제전에서 강론한 요지의 내용이다.

사무엘 울만은 1840년 독일 헤칭겐에서 유태인으로 태어났다. 그는 성인이 되어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유태교에 속한 열렬한 신앙인으로서 유태교회의 회당장이 되고 유태교회사에 드물게 보일 수 있는 평신도 율법사(랍비)가 되었다. 그는 평범한 생활 속에서 전업시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담긴 시를 많이 남겼는데, '靑春'이라는 시는 오늘날 만인에게 회자될 만큼 유명한 작품이다.

'靑春'이라는 시에는 '인간개발'의 기본정신이 담겨 있어 필자는 인간개발의 교과서처럼 애독하고 있다. 위에 적은 사무엘 울만의 강연 요지는 우주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와 만물의 영장으로 영겁의 우주 역사속에 태어난 인간의 위치와 그 존엄성을 너무나 진실하게 그려 주고 있다.

2월은 인간개발연구원이 창설된 지 33년째를 맞는 창립의 달이다. 33년 전 연구원을 창설하여 오늘에 이르면서 남은 생애를 걸고 그 결실을 맺어보고자 하는 것이 인간기술(PT, People Technology)이다. 인간개발의 철학과 실천 방안이 담긴 PT의 개발은 국가발전이나 경제성장의 목적과 가치를 훨씬 뛰어 넘는 차원 높은 세계와 인류의 과제이다.

현대 프랑스 철학의 거장 계보를 잇는 알랭 바디우 파리고등사범학교 교수는 9.11테러 사건과 같이 기독교문명과 이슬람문명이 갈등하면서 극에 달한 충돌을 일으키는 현대문명의 현상을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다. 오늘날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은 종교와 문명의 충돌이 아니라 신은 죽었으며, 그래서 종교가 힘을 잃고 무력해져서 현대 인류문명의 갈등과 충돌을 치유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 복수의 진리 즉, 진리의 다양성을 주장한다. 그래서 진리는 혁명적으로 기존의 지식체계를 허물고 새로운 진리를 탄생하게 한다고 주창한다. 진리는 4가지 절차 즉, 정치, 과학, 예술, 사랑의 절차를 통해서 기존의 진리가 혁명적으로 깨지고 새로운 복수의 진리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인류역사는 에덴동산에서 일어났던 신락원 사건 등 수많은 실패의 과정에서 교훈을 얻어 오늘의 찬란한 문명을 이룩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모순과 갈등, 대립 속에서 지금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위기에서 탈출할 길은 신의 형상을 닮은 본래의 인간상을 회복하고, 만들어 놓은 물질의 노예로 전락함을 중단하고, 정신적 창조적 주체자로서 위상을 회복하고 미래의 시간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

지난 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국제상무합동 신년연찬회에 특별 초대를 받은 필자는 참석한 각국 대사, 중국 국가고위공무원, 기업가 등 300여명의 지도자들에게 저출산 노령화에 시달려가고 있는 인간사회와 고유가, 증시파동, 자원고갈, 시장수요 감퇴,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사무엘 울만이 그의 시 '靑春'에서 밝히고 있듯이 인간의 정신적 혁명, 마음의 혁명으로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창하여 큰 반응을 얻었다.

사무엘 울만은 '靑春'의 말미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당신의 정신적인 안테나가 낮아져서 당신의 낮이 냉소주의의 눈(雪)과 비판주의의 얼음(氷)으로 덮여있을 때, 그때에는 당신은 20세라도 늙었다. 그러나 당신의 안테나가 높아져서 낙관주의의 주파를 붙잡는 한, 80세라도 젊은 기상으로 죽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창조주의 형상으로 참인간상을 회복한 사람만이 21세기 위기의 인류문명을 구원할 희망이다. 인간을 참인간으로 회복시켜줄 인간기술의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자. 인간개발연구원은 창립 33주년을 맞아 인간개발의 시대적 과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본다. **장만기**

자연은 영원한 인간의 스승

관광레저산업은 무한한 상상력과 종합예술의 극치를 추구하는 자세로 접근해야

김철호 명성그룹 회장



지난 1978년 이후, 필자는 우리 강토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관광 레저산업에 몰두해 왔다. 그 동기는 자원빈국으로 인식되었던 나의 생각을 풍요로운 자연 자원을 가진 자원부국으로 바꾸어 놓으면서 국부창출의 원천이 강토에 있음을 재발견하게 됨으로써 비롯되었다.

거대한 시베리아대륙과 중국대륙의 관문에 위치한 우리 강토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를 고루 갖춘 세계 어느 나라와도 견줄만한 풍요로운 자연 자원을 가진 나라이다. 3면이 절묘한 해안선과 4,000여 개의 보석처럼 아름다운 섬들로 둘러 쌓인 한반도를 슬기롭게 가꾸어 놓는다면 분명 세계인의 파라디스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관광문화 시도

78년 우리의 여가 문화를 남성중심에서 가족중심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매체로써 나는 콘도(Condominium)제도를 도입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

의 제도와는 달리 우리의 현실과 국민 정서에 와 닿는 새로운 콘도문화는 당시로써는 무척 생소한 숙박시설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아파트, 별장, 호텔의 기능을 아우르는 관광숙박 상품으로써 콘도를 선보인 셈이다. 당시 '명성콘도를 국민 앞에 이렇게 내놓았다.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제2의 가정-명성콘도"

그 당시 필자는 80년 4월 5일 경기도 용인의 18홀 명성 컨트리클럽 오픈을 시발로 양평의 유명산, 설악산, 지리산, 백암 등지에 70~540여만 평 규모의 부지에 민속촌, 도예촌, 20여종의 놀이시설을 갖춘 엔터테인먼트, 콘도 2,500여실, 호텔 200여실, 골프 54홀을 완공하고 바다호텔, 스키, 요트, 케이블카, 모노레일, 자연조각공원, 실버와 의료시설, 7,800평 규모의 쇼핑센터 등을 전국 15개 지역의 관광명소에 2,500여만 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명성관광레저타운 체인을 건설해 나가고 있던 때였다.

올해로 창업 40주년, 관광레저산업에 몰입한 지 30년을 맞게 된다. 이러

한 40여 년의 세월 속에는 필자의 의지와는 달리 일신의 자유가 묵인 10년의 혹독한 세월이 있었다. 기업철학을 마음껏 발현해 나갈 무렵인 83년 8월부터 93년 3월에 이르기까지 9년 7개월의 세월은 내 생애 있어 혹한의 세월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시절에도 국토에 대한 사랑과 애정, 그리고 한국 관광레저산업의 꿈과 이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으며, 이를 언제나 소중하게 다듬어 갔다

무한한 상상력과 창조적 발상 뒷받침 돼야

93년 3월 6일 자유의 몸이 된 후 바로 다음 달인 4월 19일, 국토에 대한 꿈과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강원도 태백으로 달려갔다. 그 지역은 당시 로씨는 국가적 재난지역이었다. 사복사태로 불리었던 폐광 지역(태백, 영월, 정선, 삼척)의 광부들이 잃어버린 삶을 보상하라, 일자리를 달라 몸부림치던 때였다.

필자는 2,730여만 평의 부지에 미국의 아스펜 스키 리조트보다 규모가 크고 다양한 코스가 확보되며, 동계올림픽을 넉넉히 유치할 만한 총 규모 373면의 스키 슬로프와 234홀 규모의 골프코스를 계획했다. 이를 중심으로 바다와 고원과 설원을 연계한 12가지 복합기능의 자족도시 '태백고원관광휴양도시(Snow Mountain World)' 프로젝트 사업계획을 완성하여 강원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여 98년에 이르러 덤으로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생명력인 창의적인 발상으로 구상한 바다와 고원과 설원을 연계한 다양한 기능들은 배제되고 말았다. 그리고 종래의 국내 단일 리조트 개념으로 축소된 스키장, 골프장을 위주로 한 10여 개의 프로젝트로 나누어 각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결국 프로젝트 본래의 구상은 변질되어 수익성이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투자자치는 상실되고 말았다. 또한 IMF 등 국내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참여업체들의 프로젝트는 완성되지 못했다.

만약 내 구상대로 추진되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환상의 겨울 스키상품을 중심으로 동해바다와 태백고원을 연계한 매력적인 관광레저상품을 외국인들에게 내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태백의 폐광지역도 지금의 카지노로 인한 또 다른 폐허의 땅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

우리는 천혜의 아름다운 강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려한 동해, 남해, 서해 어느 곳에도 세계에 내놓을 만한 비치타운 한 곳이 없다. 동남아인들에게 겨울상품으로 각광받는 세계 수준의 매력적인 스키 리조트도 하나 없다.

이런 우리의 현실과는 달리 창조적인 발상으로 꿈과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 내고 있는 열사의 땅 두바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두바이 개발의 주역인 셰이크 모하메드는 시인이다. 시인의 상상력, 바로 그 무한한 창조적 발상의 원천은 시(詩)적 서정성과 창의성이 무한하게 요구되는 시어(詩語)들이 심오한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치밀한 배열, 조합을 거쳐 불후의 명작으로 아름다운 시편들이 탄생되는 것처럼 불모의 땅 두바이에 호사스런 바다호텔도, 환상의 팜 아일랜드도 조화롭고 신비롭게 아름다운 시를

써가듯 구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창업초기 우리 강토의 소중한 관광자원을 개발함에 있어 종합예술의 극치를 추구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그때의 의지는 지금에도 변함이 없다. 또한 '자연은 인간의 영원한 스승'이라는 확고한 인식의 기업 철학은 나에게 항상 무한한 창조력을 일깨운다.

해양 명품 에코시티 선보일 것

필자는 지난 DJ정부 초기에 국가적 난제였던 ①새만금 간척지를 정치적 공약논리에서 벗어나 대륙시대를 겨냥한 물류, 금융, 관광 레저 중심의 해양도시로, ②시화호를 중심으로 한 대부도, 제부도 3,000~5,000여만 평의 유휴지를 서울시민을 비롯한 2,200만 수도권 시민의 해양생태도시로, ③IMF이후 정부 소유가 된 서산 간척지 4,000여 만평을 중부권의 환경친화 산업중심 에코시티(ECO CITY)로 개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 후 행정수도를 건설한다면 연기·공주가 아닌 태안반도가 적지일 것이며, 그 지역은 바로 4,000여만 평의 부지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서산 간척지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지나고 보면 2,160여만 평의 행정수도건설 부지 매입에 따르는 갖가지 부작용을 불러오지 않았을 태안반도는 아름다운 해양 도시로써 발전 잠재력이 뛰어난 또 다른 기능의 우리나라 해양 명품도시가 되었을 것이다.

그 동안의 이러한 열정과 아쉬움을 과거로 하고 미래의 새로운 꿈과 철학과 비전을 위해 정진해 나아가려 한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에 1년여 동안 준비해 온 프로젝트, 지난 81년 속초해수욕장 앞바다 조도에 띄우려 했던 나의 발명특허 작품인 꿈의 바다호텔, 바로 그 환상의 바다호텔을 중심으로 50여만 평 규모의 해양 ECO CITY 'OCEAN FANTASIA'를 세계인 앞에 선보일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아름답고 환상적인 남해의 바다를 세계적인 생태관광레저 벨트화 하고 동해와 서해를 연계하여 세계적인 크루즈의 환상적인 루트권에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보고 싶다.

해저 2층, 해상 25층, 700여실 규모의 7성급 바다호텔과, 같은 수준급 700여실 규모의 아쿠아토닉 해상콘도, 요트하버, 크루즈선착장, 호화유람선이 와 닿는 해상별장, 해저터널을 통한 신비로운 해저시설들을 고루 갖춘 해양생태도시 'OCEAN FANTASIA'는 천혜의 아름다운 청정지역을 더욱 돋보이게 하여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찾아오는 세계인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어 다시 찾는 해양생태 명품도시, ECO CITY가 될 것이다. **김철호**



김철호 회장

1938년 생으로 한양대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했다. 30년 넘게 한국 관광레저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그동안 대한요트협회 회장, 한국고미술협회 회장, 한국유스호텔협회 총재,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한양대 총동창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87년 시인으로 등단해 시문집 6권을 내며 한국시 대상, 크리스찬문인협회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명성그룹 회장으로 도시마케팅포럼 회장, 크리스찬신문사 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회원 소식

• 일양약품(정형식 명예회장, 정도언 회장)

에서 자체 개발한 항궤양제 '일라프라졸'이 지난 연말 중국 식품의약품(FDA)으로부터 신약 허가를 획득하였다. 2008년에는 미국에서 임상실험에 들어갈 예정으로 국내와 중국에서 상반기에 신약으로 허가를 받아 곧 출시 될 예정이다.



• 농협중앙회 신임 중앙회장으로 지난해 12월 27일 최원병 경북 경주 안



강농협 조합장이 선출되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2008년 신년사에서 "농업시장의 개방화에 대비해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과 농촌을 회생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신임회장은 46년생으로 포항 동지상고와 위덕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20여년간 경주 안강농협 조합장을 지냈으며, 민자당 경주군 지구당 부위원장, 경북도의회 4선 의원과 7대 의장을 역임했다.

• 한중덕 회원(전 동인안전보관 부사장)이 2008년 이워터텍(주)의 상임

고문으로 취임했다. 이 워터텍(www.ewatertech.co.kr)은 친환경기업으로 물을 쓰지 않는 소변기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 차영준 (주)유창 부사장(재경대전향우회 중앙회장)이 <大德의 새 물결

크루즈의 빛>이라는 도서를 출간하고 지난 1월 5일(토)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 책은 어머니 품속처럼 정겨운 大德의 꿈과 미래의 나라를 떠려는 소망들을 담고 있다.

• (사)대한노인회와 (주)노년시대신문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주간 노년시

대신문(이심 발행인, 주택문화사 사장)이 창간 2주년을 맞았다. 노년시대는 2006년 1월 6일, 노년세대를 대변하는 정론지로 첫선을 보인 뒤 노인복지정책과 사회적 관심사항 등을 쟁점화하며 창간 첫해부터 노년세대가 가장 즐겨 읽는 신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웅진그룹(윤석금 회장)은 지난 1월 7일 새 기업로고(CI)를 발표했다.

10년만에 CI를 변경한 웅진그룹은 경영정신인 '또또사랑'의 6가지 정



신인 '일, 사회, 변화, 조직, 도전, 고객' 사랑을 6가지 아이콘으로 표현했다. 웅진그룹은 "새로운 CI는 밝고 따뜻한 기업문화와 독창적인 아이디어, 시스템으로 시장을 창출하며 성장해온 '크리에이티브 그룹' 웅진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웅진

은 새로운 CI 선포에 맞춰 '또또사랑'을 적극 실천하기 위한 웅진공익재단(가칭)을 설립할 계획이다.

• 정림건축(김정철 명예회장)에서는 서울역 앞 대우센터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 이번 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공사기간은 2년 정도로 예상된다.

• 교보문고(권경현 사장)는 교보북클럽 회원들과 함께 지난 1월 10일(목)부터 13일(일), 1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 2회에 걸쳐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 배경지인 일본 니가타로 첫 번째 해외문학기행을 떠났다. 이번 문학기행에서는 현 메이저대 교수로 있는 고운기씨가 동행해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작품에 대한 해설을 맡아 즐거운 일정을 가졌다.

• 동국산업(정문호 부회장)의 자회사 동국S&C는 동양건설, 우일E&C컨소시엄과 손잡고 전북 남원시 수지면에 시간당 3MW급 태양광 발전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발전방식으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이다.

• 서울사이버대학교(이태교 석좌교수)는 2007년 원격대학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사이버대학으로 선정돼 교육부 지원을 받아 'e노후생애설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 과정과 전문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다.

• 서울시립 한남직업전문학교(김무남 교장)는 직업교육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무료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2008년도 상반기 직업훈련생 2,607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문의처. 02-3785-2273)

• LG CNS(신재철 사장)는 출입통제 단말기 'XID'와 이를 기반으로 한 '융합 보안서비스모델'을 개발하고 차세대 융합 보안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지난 1월 13일 밝혔다. 기존 단말기가 단순 출입허가 방식인데 비해 'XID'는 국내 최초로 사용자 기반의 출입통제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XID'는 중앙관리시스템에 의해 통합 관리되기 때문에 단말기 상태와 출입문의 개폐상태, 출입 로그 등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다. LG CNS는 이를 통해 2010년까지 총 2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 (주)여성신문사(김은숙 회장, (주)마이에셋자산운용 회장)에서는 지난 1월 14일 2008년 여성신문 신년하례식을 겸하여 '미래를 이끌어 갈 여

성 지도자상' 시상식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 **기업은행(윤용로 은행장)**과 서울보증보험(방영민 사장)은 국내 처음으로 대출 및 보증 심사를 은행 창구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신상품 'SGI싸이클론(Seoul Guarantee Insurance Cycle-Loan)'을 공동 개발·판매한다고 지난 1월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업의 어음거래 관행을 없애고 신BIS협약에 따른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 **(주)대교(송자 회장)**는 특목고 및 자사고 입시 전문학원인 페르마에듀와 손잡고 서울 은평 뉴타운 지역에 자사고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주)태창가족(김서기 사장)**은 코스닥 상장을 기념하여 지난 1월 20일 까지 고객 감사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 중 최초 코스닥 상장 기업'이라는 이번 퀴즈 이벤트에서 당첨된 1등 5명에게는 5박6일 동남아 크루즈 여행권, 2등 10명에게는 2박3일 홍콩여행, 3등 30명에게는 휴대용 게임기, 4등 800명은 태창가족 상품권 등의 경품이 제공되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본원의 원로회원이신 **김태인 삼부해운(주) 회장**께서 지난 1월 17일(목)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본원 고문으로서 연구원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해주셨으며, 국제로타리 3640지구 총재로도 활동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유비엠텍코리아	정의승 이사장	2월 1일
SH공사	최령 사장	2월 1일
파란나라	최중보 대표	2월 2일
VERONICA CASS KOREA ACADEMY	오경근 원장	2월 7일
(주)성화사	손병호 대표이사	2월 11일
한국폴리텍대학	이상덕 학장	2월 15일
GE KOREA	황수 대표이사장	2월 22일
태극건설(주)	김정국 사장	2월 28일

신규회원 (●법인회원 ■개인회원)



● 김석희 (주)삼이 회장

· 주 소 : 서울 강남구 청담동 92-4 삼이B/D
· 전 화 : (02)515-6725 · 팩 스 : (02)516-8084
· 업 종 : 종합무역, 유통



■ 박청수 (사)청수나눔실천회 이사장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883-1
· 전 화 : (031)334-4543 · 팩 스 : (031)334-4125
· 업 종 : 원불교 교역자

소모임 소식

• **이중기업동우회1그룹 (회장 유상옥 / 총무 고지석)**에서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스리랑카로의 부부동반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설 연휴와 주말이 연계되어 있어 현업에 계시는 회원들께는 외국 여행을 하는데 아주 좋은 시기라고 여겨 지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가 바랍니다.

- 일시 : 2008년 2월 6일(수)~11일(월) 5박6일
- 여행경비 : 180만원(1인)
- 참가여부 : 유상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비서실 (02-580-8777/8)

• **지중해클럽(회장 박돈서)**은 지난 12월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여정, 지중해클럽 우리들의 여행>(발행인 박돈서, 편집인 김언호)이라는 잡지를 창간하였습니다. 창간호에는 여행을 하면서 문화와 예술을 담론하는 과정을 담은 회원들의 글들이 여행지 사진과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연구원 소식

• 제4회 독서경영 오픈세미나

서진규 박사와 함께하는 2008년 신년 희망강연
2008년 새해를 맞이하여 4번째 독서경영 오픈세미나가 지난 1월 25일 서울 여성프라자 1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오픈세미나에서는 가발공장 직공에서 하버드 박사가 되기까지의 유학 생존기를 담은 도서 <서진규의 희망>의 출간에 맞춰 서진규 박사가 강

단에 올랐으며, 저자는 강연을 통해 '진정으로 살고자 한다면 당신의 꿈에 생명을 줘라. 그러면 당신은 멋진 삶을 얻을 것이다'라는 꿈과 행복에 도달할 방법에 관한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 회원친선행사

브라케티쇼 단체관람 공연 취소안내

지난 1월 12일 예정이었던 회원친선행사 '천의 얼굴을 가진 남자 <브라케티쇼>'는 본 공연 장소였던 예술의 전당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무대 손실 복구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친선행사도 부득이하게 취소가 되었기에 안내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더욱 알찬 회원친선행사로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랑의 쌀 나눔(41차) 2008 첫 시행



'사랑의 쌀 나눔' 41차 봉사활동이 지난 1월 15일 중화동 대륙빌딩 앞에서 있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행사장에 모인 개인택시 봉사자들과 모듬살이연대 임직원 및 봉사자들은 2008년 첫 공식행사를 통해 1300여포의 쌀을 무의탁 노약자들에게 전달했다. 2004년 9월부터 시작된 '사랑의 쌀 나눔'은 현대자동차의 정기후원 아래 본원과 모듬살이연대 서울시 개인택시조합, 모범운전자회 서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이웃사랑 봉사활동이다. 사랑의 쌀 나눔은 지난 한해 동안 총 1만5,000여포에 이르는 사랑의 쌀을 매월 1250여 가구에 지원하고 있어 우리사회 소외된 이웃을 되돌아보게 하는 뜻깊은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지자체 소식

• 충청북도, 청풍 아카데미 업그레이드



충청북도의 교육과 문화의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21C 청풍 아카데미'가 집중 육성된다. 본원과 충북도(정우택 도지사는) 공무원들에게 상시 학습기회를 제공해 창의적 행정 및 조직의 변화를 촉진하고, 도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청풍 아카데미를 정례화한다는데 합의하고 지난 1월 4일 운영협약식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청풍 아카데미는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강사는 우리나라 각계

전문가와 최고의 석학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10일 청풍 아카데미 개강식에는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세계 통상환경변화와 창조적 혁신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장성군 3년 연속 교육훈련 우수기관 선정



전남 장성군(이청 군수)은 2007년도 전라남도 교육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2005년 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21

세기 장성아카데미 교육 등 각종 사회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투자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업무를 평가했으며, 장성군은 교육훈련실적과 외국어 등 장기교육과정 훈련실적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창원시,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

창원시(박완수 시장)가 국가청렴위원회가 발표한 '200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1월 17일 밝혔다. 창원시는 이번 평가에서 종합 청렴도 10점 만점에 9.03점과 금품 허용 제공률 0%를 기록해 청렴도 우수기관에 뽑혔다. 특히 내부청렴지수와 청렴역량지수 평가에서는 9.56점과 9.34점을 받아 각각 전국 시 단위 지자체 중 1위를 기록했다. 창원시는 지난 해 '부패 제로'의 청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부패 대책을 마련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온 점 등이 이 같은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경기 가평공무원 '친환경장례문화에 관한 연구' 뒤늦은 조명

경기 가평군 공무원 윤길영 팀장이 발표한 '친환경장례문화에 관한 연구'



논문이 최근 경기도의 수목장 설치추진과 관련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작년 12월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제3기 중견간부 양성 과정을 이수한 윤 팀장은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으로 교육과정에서 이 같

은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윤 팀장 연구과제의 뒤늦은 조명은 경기도가 경기북부지역에 수목장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로 설 명회가 무산되고 있어 사업추진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디자인하라! 그 안에 해답이 있다

성공하는 리더는 분명하게 정의된 목표가 있다. 그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 강점에 집중하며, 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목표를 마음에 그리고, 용기와 자신감, 의지와 결단력을 키워 나아간다.

이러한 특질들이 연합하여 성취의 태도를 형성하고 인생의 전체적인 마음의 틀을 형성한다. 불안이나 두려움, 슬픔과 고통 등 풀리지 않는 부정적인 정서적 문제들과 생활습관이 모든 질병의 85%를 유발한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리더십은 자신이 확신하는 일을 결단하는 능력이다.

위를 100% 절제한 한 환자는 어느 대체의학에 관한 책에서 소개한 건강의 원칙을 보고 항암치료를 거부하고 삶의 습관을 바꾸기로 결단했다. 스스로 외로운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 후 10년 동안 건강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를 보면서 선택과 결단하는 능력은 생명까지도 좌우한다는 생각을 해 본다.

우연히 만나게 된 한 권의 책! 이 책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 책에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것은 자신만이 해야 하는 탁월한 선택능력이 아니겠는가. 더하여 평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판단과 통찰력, 그리고 실행력의 총화인 것이다.

우리가 겪게 되는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목표달성과 꿈의 실현, 변화와 성장, 진정한 치유와 마음의 평안, 행복한 삶과 같은 참으로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사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다. 외부의 상황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 사고의 습관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과 두뇌는 자신이 상상하고 듣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며, 입력된 대로 반응한다는 것은 수 없이 검증

된 진실이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감정을 다스리는 일이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면 가리지 않는다.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에 그리거나 실제로 그려 붙이거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할 수 있다고 소리 내어 반복하면 뇌에 그대로 입력되고 감정과 생각이 그 데이터에 의해 반응한다.

결국 기도와 명상도 과학인 것이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 뜻대로 디자인 할 수 있다는 것은 신의 큰 축복이다. 그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선택한 사람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기업의 임원이었던 LMI 리더십과정의 한 참가자는 한국에서 최초의 간식 수술에 성공한 힘든 수술을 한 경우이다. 그는 항암치료를 하면서 자신이 건강하게 회복된 모습을 담은 사진을 걸어 놓고 "나는 저렇게 회복될 것이다"라고 다짐하며 매일 바라보았다고 한다. 그 역시 10년째 아주 건강하게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첨단 현대의학과 자신의 감성과 의지가 결합하여 이루어 낸 승리인 것이다.

스스로 원하지 않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다. 다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할 때에만 스스로 바꿀 수 있을 뿐이다. 동기부여가인 폴 J. 마이어 회장은 "당신이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실현할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만일 인생의 초반에 '당신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라고 묻는 권위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스스로 끊임없이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당신은 행운아이다"라고 말했다.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코치가 되어 마음을 디자인하고 변화를 위한 목표를 세우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십시오! ❀❀❀

서진규의 희망스토리

진정 살고자 하는 이
우주를 비상하리!

서진규 하버드대 박사



"10년 내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는 것이 내 꿈이다. 흑지들은 너무 큰 꿈이라며 비웃기도 한다. 그러나 초라하고 보잘 것 없던 가발공장 직공이 하버드 박사가 되는 것 또한 모두들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꿈을 이루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하버드 박사가 미국 국무장관이 되는 것이 어째서 불가능하다고만 할 수 있을까?"

가난한 옛장수의 딸로 태어나 먼 발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서진규. '왜 나는 공부할 기회도, 꿈꿀 기회도,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에 스스로 좌절의 시절을 보내던 그가 '어쩌다가' 미국 국무장관 입성이 가능한 위치까지 오르게 된 것일까?

서진규 박사가 그 해답을 들려주기 위해 지난달 25일 <서진규의 희망>이라는 신간을 들고 무대에 올랐다. 지난해부터 본원이 진행하는 '독서경영 오픈세미나' 4번째 자리에서다. 이번 오픈세미나는 한국CEO연구소, 한국컨벤션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인간개발연구원, 온라인경영커뮤니티연합회, 서진규 박사 희망연구소, 랜덤하우스코리아 등이 후원했다.

"인간은 태어남에 있어 선택이란 것이 없다. 죽는다는 사실에도 선택은 없다. 그러나 누구나 한번의 기회는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기회로 살릴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기왕 태어난 것 멋지게 살아야하지 않을까?"

아무런 '뻥'도 없던 열등생 서진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역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초라한 현실이라는 환경이 안겨준 역경속에서 그는 박사가 되겠다는, 암행어사가 되겠다는 상상력을 키웠다.

세계적인 리더십의 대가들이 말하는 공통점이 있다. '비전을 생생하게 그려보고 느껴봐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 목표로 가는 길은 저

절로 열리게 되어 있다'는 말이다. 서진규는 좌절해 쓰러질 때마다 박사가 되어 있는 자신, 암행어사가 되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고 그것은 그의 비전이 되었다. 그는 명확한 비전 앞에서 '가능성의 증거가 되고 싶다'는 자신만의 사명을 부여했다. 그리고 매순간 성공을 향한 조력자를 찾아 나섰다. 그렇다면 서진규의 조력자는 누구였을까?

"내 성공을 도와줄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세상 모두가 무시해도 나만은 친구, 엄마, 동생이 되어주겠다고 말하는 '나 자신'을 찾은 것이다."

그렇게 서진규는 1971년 전 재산 100불을 들고 미국으로 가정부 취업이민을 떠났고, 미 육군 입대, 소령 예편에 이어 하버드대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다. 자신을 가로막는 역경의 장벽을 넘어 마침내 '희망의 증거'로 우리 앞에 다시 선 것이다.

서진규에게는 분신과도 같은 딸 성아가 있다. 그의 딸 역시 초등학교 당시는 꼴찌를 도맡아 했다. 그러던 딸이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미 대통령상을 받았고, 하버드대에 입학했다. 지금은 미군에서 장교로 근무 중이다. '엄마가 걸어온 성공의 과정을 따라오도록 강요한 것은 아닐까?'

"내 딸 성아는 꼴찌를 할만큼 멍청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꼴찌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꼴찌부터 한 단계씩 성장하며 느끼는 성취감을 맛보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이 필요했다. 내가 그랬듯 선택은 딸이 하는 것이다. 성아는 자율에서 벗어나는 것이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느꼈고, 미안함에 공부를 선택했던 것이다."

미국 국무장관 입성과 '세계평등상' 제정이라는 그의 목표와 꿈에 새로운 '희망'이 깃들기를 기대한다. **김재민**

정리 · 정용달 팀장 dal2020@khd.or.kr

Book Review

마음에 꿈을 그려라

유희태 / 나침반 / 272쪽



'도전하는 삶은 아름답다!'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평범한 은행원에서 기업은행의 부행장이 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시련과 좌절 속에서도 마음에 꿈을 그렸던 이 시대의 진정한 Visionaries!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선입견과 싸워 이긴 승리자의 삶의 이야기는 수많은 장애물 앞에서 있는 우리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준다. 저자는 성공의 시작은 자신이 지닌 재산, 학벌, 재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는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험난하고도 즐거운 인생 여정을 통해 보여준다.

모티베이터 -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

조서환 / 책든서자 / 304쪽

이 책은 애경을 마케팅사관학교로 만들고 KTF



에서 쇼(Show) 등 수많은 히트브랜드를 탄생시키며 성공 마케터로 인정받고 있는 조서환 KTF 부사장이 말하는 '일과 인생과 마케팅에서 행복을 찾는 법'이 담겨 있다. 저자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자발적으로 나의 조력자로 만드는 모티베이터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자신과 타인을 모티베이션했는지를 설명한다.

사무엘 올만과 청춘

마가렛 E. 암브레스트 / 윤덕순 역 / 삶과 꿈 / 3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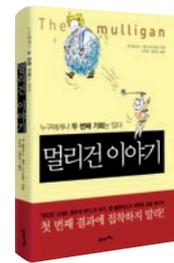


윤덕순 전 한국은행 연수원장이 지난 1997년 같은 제목으로 번역했던 책을 다시 내놓았다. 번역 편집한 책이지만 윤 연수원장의 인생 철학이 온전히 담겨있다.

그는 올만의 시를 빌려 청춘이란 연령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한 상태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미국 유대인교회에서 처음으로 율법사가 된 사무엘 올만의 삶을 따라가면서 후반부에는 사무엘 올만의 시를 한글과 영어로 소개하고 있다.

멀리건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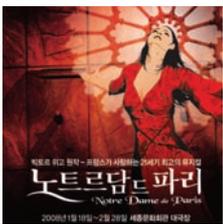
켄 블랜차드, 윌리 암스트롱 / 조천제 역 / 21세기북스 / 179쪽



경영우화의 창시자로 경영과 자기계발의 각종 이론을 우화형식을 빌어 쉽고 간결하게 전해주었던 켄 블랜차드가 이번에는 첫 번째 기회에서 실패하고 두 번째 기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준다. 이 책은 인생이라는 필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지혜와 다시 한 번 주어지는 소중한 '두 번째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삶의 지혜를 전달한다.

Culture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는 15세기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이다. 대사 없이 펼쳐지는 아름답고 장중한 54곡의 아리아, 발레와 현대 무용, 기계체조와 브레이크 댄스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안무가 관객을 사로잡는다. 한국어 버전으로 다시 태어난 이번 공연은 프랑스 특유의 아름다운 선율과 서정적인 노랫말이 완벽하게 개사되어 더욱 감성적인 무대가 될 것이다.

- 일정 : 2월 28일(목)까지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문의 : 02-501-1377

뮤지컬 42번가



경쾌하고 정확하게 떨어지는 비트, 숨막히는 탭, 번쩍이며 흔들리는 스팅글 의상,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센세이션얼한 노래, 마법처럼 춤추는 탭! 뮤지컬 42번가는 이미 공연횟수(미국 전역 6,137회)와 관객수(2004년 공연 20만)로 국내 관객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탄탄한 입지를 마련했다. 국내에는 처음으로 오리지널팀이 들어오는 것으로 브로드웨이의 스케일과 화려함을 느끼는 무대가 될 것이다.

- 일정 : 2월 28일(목)까지
- 장소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문의 : 02-742-9005

뮤지컬 라디오스타



뮤지컬 '라디오스타'는 스크린 흥행에 성공한 이준익의 동명영화에 생명력과 생동감을 더해 재창작한 작품이다. 일반 뮤지컬과 달리 새롭게 다가갈 것 이 공연에는 왕년에 가수왕이었으나 현재는 초라한 아웃사이더 스타의 쓸쓸한 뒷모습이 그려진다. 또한 그의 애틋한 그림자로 살아가는 매니저의 안타까운 모습, 소박한 시골 주민들과의 실랑이 속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다.

- 일정 : 3월 2일(일)까지
- 장소 :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 문의 : 02-556-5910

남보다 앞서려면 변화 빨리 읽어야 인기 따라가는 투자는 반드시 실패

이찬일 서울에셋투자자문 사장

주가예측 믿지 마라

새해가 되면 각 언론기관에서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을 중심으로 새해 주가전망을 하곤 한다. 어떤 이는 분기별로 그럴듯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상세히 예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예측은 전혀 믿을 바가 못 된다.

오랫동안 자본시장을 지켜본 바로는 운이 좋아 한 두 번은 놀랄만큼 잘 맞추어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결국 예측이 어긋나 대중들로부터 외면 당해 허무하게 사라져 가는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는 주가를 전망하는 사람들이 경험기간이 짧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주가가 오를 때는 시장의 관성 즉, 추세에 따른 예측을 하기 때문이다. 강세장이 되면 주가가 매년 20~30% 오르는 것을 아예 추세적으로 인정하여 예측하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주가종합지수 고점을 2400~2500선, 저점을 1800선으로 서로가 대개 비슷한 결론을 갖고 예측하게 된다.

남보다 앞서려면 변화를 빨리 간파해야 하는데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촉발하고 있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문제는 이미 2007년 4월부터 문제가 되어 지속적으로 세계 주식시장을 괴롭히고 있다. 이에 따른 미국경기의 침체가능성에 대비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주식을 매도하는 일은 일견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미 외국인의 한국주식 소유지분 또한 아시아 평균보다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이익률도 높아서 쉽게 매물화 될 수 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어 앞으로도 한동안 매도가 이어지리라 보여진다. 최근 들어 경기과열에 따른 물가불안으로 중국도 긴축을 강화하고 있어 이래저래 상황은 악화되어 조정국면이 지속되리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강세를 주장해온 사람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미국이 경기침체가 오더라도 신흥개도국(중국, 인도 등)의 높은 경제성장은 미국경기와 탈 동조화 현상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의 최대 수출시장이 미국이고 중국 등에서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있고, 아시아 수출의 60% 가량의 최종소비처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침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세

계 각국 특히 아시아의 어떤 나라도 한동안 시장을 지켜보면서 안전한 투자처인 채권과 고금리 특판예금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시장이 한창 어지러울 때 살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기다리는 것이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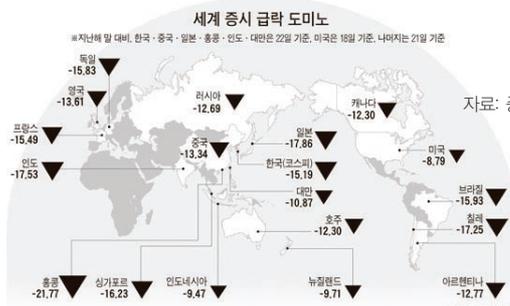
부를 축적하는 방법

절약과 근검을 통해 꾸준히 저축하는 행위야말로 부를 축적하는 기본이다. 그러나 이런 좋은 습관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지금은 부부가 맞벌이해서 열심히 저축하고도 먹고살기가 힘들고 강남 집값은 너무 비싸 사기도 힘들다. 부자가 되려면 저축도 필요하지만 투자를 해야 한다. 봉급생활자로 저축만 해서 부자가 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세월이 필요하다. 많은 봉급생활자는 몇 번 시도하고 실패한 뒤로는 좌절하고 포기한다. 끊임없이 도



일러스트 · 이제경



전하고 시도하며 행동해야 한다. 투자는 실패의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해야 한다. 실패는 성공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고통과 좌절을 맛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 피와 땀을 흘려야 한다. 실패에도 좌절치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간다면 결국 성공이라는 목적을 이룰 것이다.

인기를 쫓지 마라

부동산은 너무 비싸고 보유세까지 겹쳐 매력을 잃은데다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성은 주식시장을 선호하게 만들었고, 운용을 대신해주는 펀드투자까지 권하니 은행의 예금, 적금은 계속해서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다.

이런 지속적인 현상은 차츰 주식투자나 펀드투자를 통해 돈 번 소문이 퍼지고 펀드운용회사들은 높은 수익률 광고까지 하여 대중들을 부추겼으니 돈 벌 욕심으로 너도나도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결국 주식시장은 과열로 치달게 되었다. 정치가나 배우야 인기를 먹고 살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인기를 쫓는다는 것은 파멸을 초래한다.

특정업종이나 유형의 증권이 투자자들 사이에 인기를 얻는다면 인기 초기에는 주가가 싸니 참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느 수준 이상으로 인기가 상승하면 위험해진다. 또한, 그런 인기는 언제나 일시적이다.

중국특수의 수혜업종이라며 과도한 인기를 구가하던 조선, 기계, 철강, 해운업종 등은 물론 지주회사 기업군과 고유가 반사이익 업종인 대체에너지업종 등이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 일단 인기를 잃으면 회복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린다. 싸지니까 사라고 권하는 애널리스트가 있지만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과 같이 위험천만한 일이다.

어떤 종류의 상품이(부동산, 주식, 원자재, 미술품 등) 과열되어 뜨거워진 후 진입하면 과열된 시장에서는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치명적 화상을 피하려면 인기가 과열된 시장을 피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이 그렇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펀드투자에 대하여

주식과열과 펀드열풍에 대해 지난 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제 주식시장은 조정국면을 보이고 있다. 어느 특정 회사의 펀드가 수익률이 앞선다고 하여 쓸림이 심하게 일어나서 그 후유증을 우려한 바 있다.

수익률은 시장장기평균 수익률로 회귀하게 되어있어 높은 수익률로 인기를 끌던 펀드는 이제 외면당하고 있다. 가장 잘 나가고 가장 인기 높던 펀드들은 그 자신의 성공에 대한 피해자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왜 교만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펀드를 선택할 때는 펀드 운용회사와 펀드매니저, 그리고 과거수익률을 봐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펀드운용사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우열을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선진국에서는 개별펀드마다 펀드매니저의 이

름과 경력, 근무연수 같은 정보를 자세히 공개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운용사는 팀제 운용을 핑계로 밝히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펀드매니저가 너무 자주 교체되어(평균 2년) 실력 있는 펀드매니저의 부족으로 인한 잦은 이동이 원인인 듯하다. 잦은 펀드매니저 교체는 결국 수익률을 낮추어 외면당하고 만다. 결국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 시야가 넓고 통찰력을 갖춘 펀드매니저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당신의 돈은 펀드회사를 사는 것이 아니고 펀드매니저의 펀드철학을 사는 것이다.

한국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운용전문인력제도로 규제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지만 운용전문인력의 능력을 사전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이긴 하지만 선진국에서도 법과대학원이나 의과대학원은 있어도 펀드매니저 대학원은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운용전문인력이란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풀고 넓게 문호를 개방하여 시장참여를 넓히는 것이 많은 전문인력을 키우는 길이기도 하다.

어떤 특정 펀드가 계속해서 우월적으로 수익률을 앞서 가기 어렵기 때문에 인기펀드나 수수료가 높은 펀드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인기펀드라 함은 어떤 시기에 특정 업종이나 종목에 지나치게 편중된 배분을 하고 있어 그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

그 동안 너무 높은 수익률을 보인 중국, 인도 등의 해외펀드나 수익률이 유독 앞서간 인기 국내 성장형 펀드는 반등 시 비중을 줄여 보다 보수적인 펀드로 옮기는 것도 방법이다. 해외펀드의 경우 높은 경제성장률이 수익률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국내의 경우도 다음 강세장에서는 다른 업종이 인기를 끌기 때문에 현재의 인기펀드는 다음 강세장에서 좋은 수익률을 내기가 어렵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한다. 풍부한 유동성과 중국, 인도의 고성장, 각종 연금의 주식선호현상은 주식시장이 일시적 조정으로 끝나고 오름세가 거침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이런 말은 믿지 않는 게 좋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부자는 소수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기 때문에 늘 대중과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김재현**



이찬일 사장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 일리노이대 경제학과에서 수학했다. 71년 한국은행 근무를 시작으로 대신증권 조사부 차장, 동서증권 조사부장 및 국제부장을 역임했다. 대신경제연구소 설립이사, 대우투자자문 상무이사, 부국증권 상무이사를 거쳐 99년부터 서울에셋투자자문 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1992년부터 4년간 George Soros의 Quantum Emerging Growth Fund를 운용한 바 있다.

샤워실의 바보

문용린 서울대 교수 / 전 교육부 장관



이 습우화만 있는 게 아니다. 새로운 우화는 계속 만들어진다. 무자년(戊子年)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우화 하나를 덕담으로 던진다. '샤워실의 바보(a fool in shower)'란 우화가 있다. 197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 교수가 공무원들의 정책 결정에 대한 경박한 태도를 빗대어 지어낸 우화다. 샤워실에서 찬물, 더운물 쪽지를 번갈아 틀다가 결국 적당한 온도의 물을 고르지 못하고 샤워를 끝내는 바보를 가리킨다.

샤워 물 쪽지는 온수, 냉수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조금 기다려야만 원하는 온도의 물이 나온다. 즉, 더운물 쪽으로 쪽지를 틀었다고 금방 더운물이 나오지 않는다. 조금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짜증이 날만큼 기다려야 할 경우도 있다. 샤워실의 바보란, 그런 인내심이 부족하여 물 쪽지를 번갈아 돌려대다가 결국 원하는 물을 얻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결국 이런 바보는 원하는 온도의 물을 얻지 못하여 제대로 된 샤워도 하지 못한 채, 샤워를 끝내게 된다.

우리의 옛말 중에도 샤워실의 바보와 같은 뜻의 말이 있다. 조령모개(朝令暮改), 조삼모사(朝三暮四) 등이 그것이다. 아침에 좋다고 시작한 일을 저녁에는 싫다고 집어 내던진다. 똑같은 일을 두고 아침에는 3이라고 했다가 저녁에는 4라고 바꾸어 말한다. 어쩌면 동서양이 이리도 비슷한가.

다만 문화적인 생활 습관에 따라 표현만 다를 뿐이 아닌가? 아파트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샤워에 습관들인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조령모개, 조삼모사보다 샤워실의 바보가 더 실감나는 표현으로 와 닿는 게 사실이다.

이런 샤워실의 바보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흔하게 발견된다. 특히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공공정책 분야에서 그렇다. 어떤 정책이든 집행과 더불어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작은 씨앗을 뿌려도 발아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의 기다림이 요구된다. 어떤 대나무 씨앗은 파종해서 5년이 지나서야 싹이 돋는다고 한다. 사과나무를 비롯한 대다수의 과수나무도 제대로 된 열매가 맺기까지는 최초의 열매가 맺고 나서도 최소한 5년 이상이 지나야 된다고 한다.



하물며 국가 공공정책의 경우는 도입 후 적어도 최소한 몇 년 이상의 숙성과 발효기간이 요구된다. 거치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밥을 지을 때에도 끓기만 해서 안 된다. 뜸 들이는 과정을 거쳐야 밥맛이 제대로 난다.

프리드먼이 샤워실의 바보란 말을 써서 정책입안과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통렬히 비판한 것을 보면, 미국의 공공정책 분야에서도 조령모개, 조삼모사의 폐해가 크게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아니 어쩌면, 샤워실의 바보가 가장 많은 나라인지도 모르겠다.

백년지대계라는 말로 교육정책의 특성을 규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샤워실의 바보 현상이 교육 분야에서도 흔히 보인다. 물론 교육 분야에만 유난히 많은 것은 아닐 것이다. 여러 교육정책 중에서도 대학입시관련 정책엔 샤워실의 바보 현상이 크게 두드러진다.

특히 요즘 이명박 정부를 위한 인수위가 수능등급제 폐지안을 내놓자 찬반논쟁이 심각하게 일고 있다. 몇 년을 준비한 끝에 이미 3년 전에 예고되어 마침내 2007년도 수능시험에 처음 적용한 수능등급제를 두고, 한편에서는 부작용이 심하니 당장 그만 두어야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겨우 한번 시행해본 제도를 그 성과가 채 나타나기도 전에 그냥 폐기해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편다. 후자의 편에서 보면, 인수위의 수능등급제 폐지는 '샤워실의 바보'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지적인 셈이다.

수능등급제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사례로 몰매를 맞고 있지만, 상당한 가능성을 안고 있는 유망한 입시정책 대안이었다. 결코 즉흥적으로 도입된 정책이 아니라, 오랜 동안의 심사숙고를 거쳐 입안된 정책이다. 수능점수의 1~2점 또는 심한 경우에 소수점 아래 점수의 차이에 따라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곤 하는 과도한 수능 의존체제를 탈피하여, 학력 이외의 다양한 개인차 요소를 대학전형에 반영할 길을 터 주자는 전략적 의도를 담고 시도된 정책이었던 것이다.

이 정책의 도입이 3년 전부터 예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이에 대한 대비 즉, 전형요소의 다양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수능등급제가 파생시키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전형요소 다양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전환을 위한 진통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수능등급제의 폐지는 '샤워실의 바보'의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다.

공직자는 정책의 원래 목표가 살아나도록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 교육정책은 특히 더 그렇다. 교육정책을 집행하고 이를 그 성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뒤집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인내를 가지고 좋은 효과와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

권력 이양시기에 인수위가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샤워실의 바보란 우화가 무자년 새해의 좋은 덕담이 되길 바란다. **김재**

BETTER PEOPLE BETTER WORLD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제1500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강연을 하고있다.



인간개발연구원은...

1975년에 설립된 순수민간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개인과 가정, 기업과 지역사회의 성공을 도와주고 인간중심의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인간개발연구원의 신념을 구체화하고, 자기변화의 비전을 개발하고, 조직변혁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BUSINESS GUIDANCE>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 지방자치이카데미
- 밀레니엄경영자포럼
- 리더십개발프로그램
- GLOBAL KOREANS NETWORK
- 회원커뮤니티
- 소포럼

인간개발연구원 회원가입안내

회원자격

본 연구원의 이념과 정신에 동의하는 기업체 및 단체의 임원, 전문직업인 또는 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회원구분

- 개인회원 : 회비 年 1,000,000원(1인) - 가입 시 개인명의로 가입이 되며 모든 혜택이 가입한 1인에게 제공
- 법인회원 : 회비 年 3,000,000원(3인~5인) - 법인자격을 가입, 대표자를 포함 임원 5인까지 회원활동 가능
- 연회비납부 : 하나은행 102-910003-99904 예금주 : (사)인간개발연구원

회원특전

- ▶ 온라인 회원 가입자격 부여(각종 세미나 녹취자료 및 교재 다운로드 및 동영상 청취)
- ▶ 각종 세미나 및 프로그램 참가비 할인 및 세미나 무료 참석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참가 할인 (회원 3만 5천원 / 비회원 5만 5천원)
 - 법인회원 - 대표자 1인 또는 지정 1인 1년간 조찬 무료 참석
 - 각종 국내외 시찰프로그램 및 제주하계경영자 포럼 참가비 할인
 - 독서경영오피세미나, 회원사 직원대상 세미나 등 무료참가(年 4회 예정)
 - 다양한 회원친선행사 무료 및 유료행사 참석
- ▶ 경영자료 외 각종 자료제공 (개인회원 1구좌, 법인회원 3구좌)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강연TAPE 및 CD중 택 발송
 - 경영도서 외 기타도서 제공(각종 세미나 참가 시)
 - 세미나 후기자료 제공 (메일 및 팩스발송)
 - 월간지 「Better People Better World」제공
- ▶ 회원동정 및 회사홍보소식 이메일 및 팩스안내 서비스
- ▶ 교육자문, 사원연수교육, 해외기술교류 등 다양한 업무협조 (사내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강사섭외 협조, 회사홍보협조 외)
- ▶ 인간개발연구원 내 다양한 커뮤니티 가입자격 (이중기업협력동우회그룹, 화목회, 다락회, 인경회, 차이나클럽, 지중해클럽, YCF 등)



사단법인 **인간개발연구원**

135-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강남우체국빌딩 5층
Tel. 02-2203-3500 Fax. 2203-1974 www.khdi.or.kr